남극해를 순항하는 한국 최초의 쇄빙선 아라온호.

12억 인도 국민,
대한민국에 푹 빠지다
2010년 1월, 한 · 인도 FTA 발효!
거대 신흥시장 인도를 선점합니다.
세계 2위의 12억 인구와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4위의 GDP,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으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대한민국은 경쟁국보다 먼저 인도 시장에 진출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 갑니다.
KOREA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

조세·재정·금융 정책 고용 늘게 지원방식 바꾸겠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도 어느새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다. 고용 한파를 녹이고 '고용 있는 성장'이 되려면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일자리 문제는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자리 중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노동시장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을 포함한 후발 개도국들의 빠른 성장이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중국 등 인건비가 싼 나라로 국내 사업을 이전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절약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해 고용 인원을 줄여 나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의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효율화에 따라 실직자가 급증했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 해소다. 중소기업 취업이 경력관리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마련해 일자리를 연결해줄 것이다. 인사 및 노무 분야 출신 은퇴자를 취업 지원관으로 선발 배치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알선과 상담도 돕게 할 것이다.

> 정부는 탄력적, 선택적 운용이 가능한 근로시간제를 확산하고,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해서는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7백12만명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나아가 탄력적, 선택적 운용이 가능한 근로시간제를 확산하고,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한다. 취약계층의 보육, 청소, 교육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적극 육성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고용 위기의 근원적 처방을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고용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조세·재정 ·금융 정책도 고용을 촉진하는 형태로 지원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G

Weekly
2010.02.03
No.47(통권 148호)

Contents

COVER STORY

이젠 고용이 경쟁력이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탄탄한 잠재력을 과시했다. 이제는 질적 성장, 그중에서도 '고용을 수반한 성장'으로 내실을 다져가야 한다. 1월 29일 드디어 첫 쇄빙 시험에 성공, 꽁꽁 얼어붙은 남극의 얼음덩어리를 깨뜨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아라온호처럼 2010년 '대한민국 고용호(號)' 도 순항을 이어가길 기대해본다.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2.0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일러스트 · 남동윤

기 획 특 집

2010년 희망 프로젝트 일자리가 살아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요동치던 지난해, 한국경제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회복세를 보여줬다. 그러나 고용 여건은 아직 이러한 경기 흐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다각적인 고용 창출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일자리 만들기엔 국가와 민간, 노와 사가 따로 없다. 국민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줄 고용 확대는 2010년 대한민국의 힘찬 비상(飛上)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46호(2010년 1월 27일자) 기획특집 '원자력 富國의 꿈이 영근다'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국 원자력의 힘, 영원하라~"

"'2030년 원전 수출 4천억 달러, 놀라운 선택은 계속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이번 원전 수출로 우리의 원전 기술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태껏 우리나라는 조선, 철강, 정보기술(IT) 분야만 두드러진 줄 알았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 발전상도 대단하더군요. 앞으로 원자력발전을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키우고 더 안전하고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한국형 원전을 만들어 20년 후에는 원전으로 4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_우도형

"'한국 원자력산업 르네상스 시대 연다'는 기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쟁력을 키운 원전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 에너지이자 지구온난화를 이겨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원자력임을 알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많은 국가에 원전을 수출해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도 기여했으면 합니다."_이순호

"원전 올바른 이해에 도움 줘"

"2010년은 우리나라 원자력의 '미래 도약 원년'으로 세계 3대 원전 선진국을 꿈꾸는 해라는 희망찬 기획특집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에 기대가 커졌습니다. 청정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이 환경도 살리고 녹색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란 믿음도 생겼습니다. 또한 원자력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_최성열

46호 포커스 '통곡의 아이티… 정부·국민 다 함께 도움의 손길'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최근 강진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아이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아이티는 6·25전쟁 때 물자를 지원해준 우방국일 뿐더러 천재지변을 당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응당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과 긴급 구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동참해 그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인도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_배을순

46호 리뷰 '사회통합위원회 10대 업무 계획 발표'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마찰, 이견들을 통합 조정해 화합 분위기를 이끌어내려는 회의가 열려 국민들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층, 지역, 세대, 이념 간 갈등과 마찰은 치유하기 힘든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려면 상호 간에 불신의 벽을 허물고 이해와 양보와 타협을 앞세워야 합니다. 이번에 설치된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우리 사회를 나눔과 소통, 화합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리라 믿습니다."_woodh0619

정부·국민 다 함께 발 벗고 나섰다

2030년 원전 수출 4천억 달러
'놀라운 선택'은 계속된다

알립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애칭' 찾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 이전 개관 5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박물관 애칭을 공모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할 박물관 애칭은 1인당 2개 이하로 제한된다.

기간	2월 19일까지(우편접수의 경우 2월 19일자 소인까지 유효)
공모 주제	국립중앙박물관을 더욱 친근감 있는 복합 문화기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박물관 애칭'
대상	제한 없음
당첨자 발표	3월 초
시상	으뜸상 1명(1백만원), 버금상 2명(30만원), 보람상 3명(20만원). 수상작과 동일한 애칭 응모자 상품권(각 1명) 으뜸상(10만원), 버금상(5만원), 보람상(2만원)
접수	**우편**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애칭 공모 담당자 앞), **e메일** heekyung@korea.kr
문의	국립중앙박물관 02-2077-9107 museum.go.kr

▶▶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 위한 국제 포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2월 4, 5일 서울시 동대문구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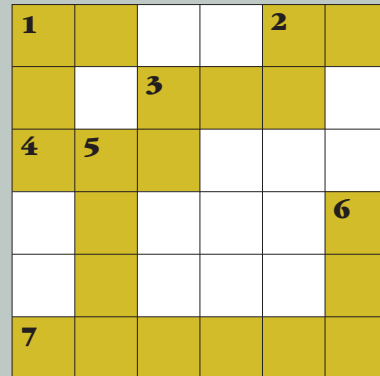
포럼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혁신사례'와 '경험학습'을 통해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현대경제에서의 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 발전과 아시아 경제' '탈규제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의료산업 발전과 후생 증진을 위한 의료 분야 개혁' 등 6개 주제에 맞춰 토론할 예정이다.

발표와 토론 외에도 대내외 명사들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과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유익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Tel **02-2150-4615**

공감 퍼즐

1				2	
		3			
4	5				
					6
7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2월 10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45호(1월 20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세상 **3** 사랑채 **4** 매무새 **5** 시무식 **7** 수정안
세로 1 파랑새 **2** 세종시 **3** 사무 **4** 매식 **6** 무용수

〈Weekly 공감〉 45호 '공감 퍼즐' 당첨자

권 영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맹성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안준희 ·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2리
정찬건 ·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홍단풍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가 로

1. 일자리를 구해 취직하는 일.
2. 타고르의 나라. 인구가 12억명에 가까운 거대 시장을 가진 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해 세일즈 외교를 펼친 나라.
3. 달걀의 흰자위에 둘러싸인 둥글고 노란 부분. 또는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
4. 납세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 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7. 보통 전후(戰後)에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용어죠. 보릿고개 등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로, 이제는 은퇴를 하거나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세 로

1.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주로 부동산, 자동차, 중기(重機), 선박, 어업권 등을 취득할 때 매기는 세금이죠.
2.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 또는 마음이 어진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3. 노동자와 사용자를 이르는 말. "일자리 창출에 OO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5. 반찬거리로 쓰려고 무를 썰어 말린 것.
6. 유능한 직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교수·연구하는 대학. 수업 연한은 보통 2, 3년이고 전반적으로 4년제 대학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독자들의 쓴소리, 단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공감

경기 시흥시의 자영업자 조한영(57)씨는 매주 〈Weekly 공감〉을 보는 애독자다. 〈Weekly 공감〉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gonggam.korea.kr)에 접속해 기사를 정독할 정도. 큰딸의 권유로 〈Weekly 공감〉과 인연을 맺었다는 그는 "〈Weekly 공감〉을 보며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는다"며 흡족해했다.

〈Weekly 공감〉을 보게 된 동기는.

오는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큰딸이 〈Weekly 공감〉을 정기구독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지난해 〈Weekly 공감〉을 들이밀며 보라고 주더군요. "아빠 같은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많다"면서요. 그렇게 보기 시작한 것이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Weekly 공감〉을 보며 인상 깊었던 기사는.

아무래도 민생정책에 대한 기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Weekly 공감〉을 보고 있으면 정부가 서민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기획특집으로 다룬 원전 기사도 재미있게 봤어요. 원자력 하면 위험하게만 생각했는데 그동안 많이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됐지요.

〈Weekly 공감〉을 보며 아쉬운 점은.

요즘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좀 줄어든 느낌이에요.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한국을 빛낸 사람들의 희망찬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Weekly 공감〉에서 꼭 다뤘으면 하는 기사는.

취업정보 기사가 매주 들어갔으면 합니다. 요즘엔 젊은이들도 취직하기 힘들고 실업자도 많으니 취업정보가 매주 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지난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김정화 전북 군산시 개정동

1. 양영훈 씨의 여행 칼럼 '걷고 싶은 길'에 내 고장 군산의 비단강길이 소개됐던데, 정말 잘 쓴 글이더군요. 전국의 많은 분들이 군산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독자들께 군산을 방문해 비단강길을 걸으며 추억의 낭만 한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Weekly 공감〉이 내 고향을 기사화한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2. 국운 상승의 촉매제로 원자력이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평화의 원자력이 인류의 삶에 행복이란 파랑새를 몰고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의 월등한 원전 기술력이 지구촌 곳곳에서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일 것을 믿습니다.
3. '민족의 명절 설을 이렇게 즐기다' 하는 주제로 3대가 화목한 가정이나 고향을 사랑하는 수구초심, 그리운 사람들이 만나는 광장 등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기백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1. '통곡의 아이티에 정부, 국민 다 함께 발 벗고 나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진과 구호 인력들이 아이티에서 땀 흘리며 활약을 펼친다는 기사를 보고 가슴 한구석이 뿌듯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아이티 재건을 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2010년 새해를 기분 좋게 열게 해준 원전 수주! 〈Weekly 공감〉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 기술 수준과 안전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배경, 특히 중수로의 한국 도입 과정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아랍은 물론 인도와도 수출계약을 맺어 세계 3대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3. 아이티 지진에 대한 후속 기사를 다뤘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이티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 취약 국가와 빈곤 국가를 돕는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아이티 구호 동참을 장려하는 기사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3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도전! 일자리 찾기'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꿈과 희망의 미래뉴스
청와대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

2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요강

모 집 기 간 2010년 1월 20일(수)~2월 19일(금) 오후 6시

모 집 대 상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누구나(2010년 기준)

지 원 방 법 온라인 접수 및 학교장 추천서 우편 접수

온라인 – 청와대 홈페이지 내 어린이 신문 푸른누리(kidnews.president.go.kr)

우편접수 – 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청와대어린이신문 푸른누리 편집실

※ 학교장 추천서에는 학교장 직인이 필요하며, 2월 19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홈페이지 및 푸른누리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 president.go.kr / 푸른누리 신문: kidnews.president.go.kr
문의 : 푸른누리 편집실 070-7626-8322 / 메일 : kid@president.go.kr

이명박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서울 G20 주요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세계 최정상 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했다. 이 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주요 20개국(G20) 비회원국까지 망라한 '비즈니스 서밋' 개최 등 서울 G20 정상회의의 '그랜드 비전'이 제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과제와 도전'이란 제목의 특별연설을 통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서 특별연설을 한 4개국 정상 중 첫 번째로 연단에 올랐다. 다보스포럼 단독 특별연설은 한국과 중국, 캐나다, 브라질 4개국 대표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맨 처음에 나서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선도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서울 G20의 운영 방향은 △기존 G20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 △국제 개발격차 해소와 이를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 △G20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Outreach·외연 확대)'와 비즈니스 서밋(Summit) 개최 등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금융규제·감독체제 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

최근 국제사회에서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확인시켜준 이명박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동아DB

다보스에서 열린 '한국의 밤 2010'

김치와 막걸리, 아리랑 선율의 환호

눈 쌓인 스위스의 휴양도시 다보스의 밤이 김치와 막걸리, 그리고 아리랑 선율에 취했다.
다보스포럼(1월 27~31일) 기간 중인 1월 28일 밤 다보스 중심가 모로사니 슈바이처 호프 호텔에서는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 8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밤(Korea Night) 2010' 행사가 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선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로 '세계 리더국가'로 부상한 한국의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 한국문화와 서양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였다.
민화풍 녹색 호랑이 그림을 배경으로 가야금과 재즈 협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전통 타악, 국립발레단의 아리랑 창작무용 등 공연이 펼쳐져 외국 참석자들로부터 "한국 민족의 비상과 전 세계의 화합을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가수 박기영이 부른 '체인지 더 월드(Change the World)'라는 노래로 막을 내린 이날 행사에선 엄선된 요리사 16명과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한 황제김치, 전복보쌈김치 등 김치류와 울진대게말이, 대하잣무침 등 다양한 한식이 외국 참석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식 세계화에 관심 많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이날 행사에 참석해 외국 참석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권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등 '코리아 세일즈'에 적극 나섰다.

제금융기구 개편 같은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최근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Too-big-to-fail)'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언급한 점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 금융기관들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산업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국이 국제 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 외환보유고를 축적함으로써 생기는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기업인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 개최 구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주장은 두 차례의 동시다발적인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촉발됐지만, 개도국과 신흥국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위기 예방과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안전망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당면한 세계 금융·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향후 유사한 위기 방지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필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아웃리치'란 용어를 사용하며 G20의 역할과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비회원국과 민간 참여를 확대해 G20의 역할과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정에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서밋' 개최 제안은 그동안 세계 금융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G20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세계경제가 회복하는 단계에선 민간 부문의 투자나 소비 확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 회복에 선도적 역할을 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연설 다음 날인 1월 29일 영국 B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연내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듯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북한의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1월 25일 인도 뉴델리 총리실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만모한 싱 총리 정상회담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인도 아유타국 공주였던 가야 시조 김수로왕의 왕비 이야기를 통해 2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인도와의 거리가 더욱 좁혀졌다. 지난 1월 1일부터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이 발효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제 인도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가야 시조 김수로왕의 왕비인 허왕후의 출신국이자 신라 스님 혜초가 고생 끝에 찾은 천축국이 바로 인도다. 거리는 멀지만 이처럼 역사적 인연이 적지 않은 인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5일 인도 총리실에서 만모한 싱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한·인도 관계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도 방문 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두 나라 사이에 공고한 정치·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외교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올 상반기 중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국방군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지난 1월 1일부터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이 발효된 것을 환영하고 향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교류를 포괄하는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한마디로 무역자유화를 강조하는 FTA보다 더 넓은 의미의 FTA다. 인도는 아직 유럽연합(EU), 중국,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한국으로서는 인도 시장을 '선점'하게 된 셈이다.

CEPA 발효 "2014년 對인도 교역 300억 달러 목표"

아울러 두 나라 정상은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양국 교역액을 2014년까지 3백억 달러로 증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인도 교역 규모는 2002년 26억 달러→2004년 55억 달러→2008년 1백56억 달러→2009년 1백14억 달러(추정)로 급증하는 추세.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인도 정부의 정책을

동아DB

두 정상은 양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자 확대, 인력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높이 평가하고, 인도에 진출한 3백80여 우리 기업의 투자 및 기업 환경이 더욱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싱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對)인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으며, 인도 내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인력교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인도 내 원전 건설사업에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두 나라 정상은 한·인도 양국 관계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정상회담 직후 △한·인도 수형자 이송 조약 △IT 협력 양해각서(MOU)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MOU 등 주요 협정 및 MOU 서명식을 가졌다.

이 대통령, 인도 원전 건설사업 협조 요청도

한편 이 대통령 내외는 정상회담 다음 날인 1월 26일 인도 독립을 기념하는 최대 국경일인 '리퍼블릭 데이(Republic Day)' 행사에 '주빈(Chief Guest)' 자격으로 참석했다. 인도는 1975년 이후 외국의 국가 또는 정부 수반을 리퍼블릭 데이 행사 주빈으로 초청해 왔는데, 인도 독립 60주년을 맞는 특별한 올해 이 대통령을 초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인도와 '특별한 사이'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퇴임 이후 인도를 찾은 이 대통령은 '인도의 실리콘밸리'라는 방갈로르를 방문했으며, 당시 인도 경제인연합회 연설에서 "한·인도 간 자유무역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인도 방문 전 녹음한 제3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1월 25일 방송)에서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맺은 FTA에 이어 인도와의 CEPA로 일자리가 늘고 수출이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아시아는 지구촌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인도 순방은 신아시아 외교에 방점(傍點)을 찍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에 대통령의 장녀와 손녀가 동반한 데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인도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인 가족 동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행 가족의 경비는 자비로 부담하며 2008년 페루 방문 때도 딸이 동행했고, 역시 자비 부담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정상외교에서 대통령의 가족 동반은 국제관례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8년 한국, 중국 등을 순방할 때는 딸은 물론 동생 부부까지 동행했고,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노모와 함께였다. 1979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한일 순방 때 부인과 딸을 동반한 바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인구 11억·경제성장률 9% "인도를 주목하라"

인도 중산층 젊은이들이 꿈꾸는 결혼생활의 로망은 '현대 자동차를 타고 삼성 TV를 보며 LG 세탁기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 인도 속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말이다. 델리, 첸나이, 뭄바이, 푸네, 방갈로르 등 인도 주요 도시에 진출한 3백80여 개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출의 교두보가 돼주고 있다.

우리 기업은 물론 대통령까지 인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인도가 가진 잠재력 때문이다. 11억5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최근 5년간 평균 9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중국과 함께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는 인도는 30년 뒤쯤 중국 못지않은 대국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인도에는 현재 한국 교민 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1954년 반공포로 8명의 정착으로 1세대를 형성한 인도 동포사회는 1990년대 인도의 개방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진출 기업의 주재원, 동반가족들이 주를 이룬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1월 26일 저녁 뉴델리에서 김명보 재(在)인도 한인회 회장 등 재인도 동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인도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동아DB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도는 이미 IT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베일 벗은 명품 복합도시 '아리울'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확정… 개발 사업 구체화

새만금은 앞으로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녹색성장 기반과 청정 생태환경을 갖춘 세계적 명품도시로 거듭난다. 사진은 전북 부안에서 본 새만금 2호 방조제.

새만금 개발 사업을 구체화한 종합실천계획이 지난 1월 28일 열린 제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전북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킬로미터를 축조해 간척지 2만8천3백 헥타르와 호소(湖沼) 1만1천8백 헥타르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녹색성장 기반과 청정 생태환경을 갖춘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2월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한 후 7월 2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사안을 보완한 최종안이 이번에 발표한 종합실천계획이다. 종합실천계획은 2008년 10월 농지 위주에서 복합용지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 방향을 전환키로 한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완성해 구체적인 중·장기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국제업무·관광레저·생태환경(일부) 용지를 묶어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안이 눈에 띈다. 과학연구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 일부 용지의 형상과 위치를 조정하고, 용지별 개발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한 데서도 정부의 강한 개발 의지가 엿보인다.

새만금의 핵심 전략개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명품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발표한 3개 디자인 시안 가운데 국민과 전문가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것은 방사형 구조다. 방사형 구조는 비용이 다소 많이 들지만 투자 유치를 고려한 상징성과 상호 연계성 등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명품 복합도시의 디자인은 방사형 구조를 기본 골

격으로 하면서 나머지 2개안(집중형, 연결형)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남측 관광레저지역에는 집중형 디자인이 그려졌다. 단계적 개발과 개발 비용 최소화를 고려해 토지 형상도 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복합도시는 녹색산업, 미래융합기술, 첨단산업, 국제업무, 레저·생태 등 5대 권역으로 특성화되고 각 권역에는 핵심 기능과 함께 주거, 상업, 관광, 생태 등 부기능이 복합적으로 배치됐다.

새만금이 '물의 도시'로서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수질 확보 대책도 세웠다. 수질 확보 대책은 목표 수질을 현재의 농업용수 수준에서 뱃놀이 같은 관광레저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예측될 때까지 현재의 수질 관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001년부터 시행한 수질 관련 정부 조치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단계 대책을 마련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9천9백5억원을 수질 개선 비용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정 새만금 구현을 위한 탄소프리(Carbon-Free)기법 개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자원 관리, 생태도시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기반시설 중에는 신항만을 우선 건설키로 했다. 신항만은 우선 3, 4선석 규모로 2011년 말부터 건설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내부 간선도로는 남북 3개 노선, 동서 4개 노선,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생긴 순환링 도로 1개 노선이 신설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군산 철도 건설도 검토 중이다. 또 군산공항 확장 여부는 새만금 개발 속도와 수요를 감안해 추후 검토하고 우선 기존 공항에 국제노선 취항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5대 선도사업 추진… 개발 지연 우려 불식

새만금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5대 선도사업의 개발계획도 좀 더 구체화했다. 5대 선도사업은 산업·관광·국제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명품 복합도시 건설,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의 명소화, 매립토 확보와 조달, 방수제 착공, 만경·동진강 하천 종합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성원가 절감을 위한 매립토 확보와 조달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정부는 5대 선도사업을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개발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강력한 개발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의 비전에 어울리는 브랜드 네임도 새로 만들었다. 새만금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간척사업, 환경파괴사업을 떠올렸으며 외국인들은 '새만금' 발음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 이에 새만금 개발 비전은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The City of Neo Civitas)', 글로벌 네임은 'Ariul(아리울)'로 정했다.

새만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비용은 2차 유발사업비를 제외

새만금의 핵심 전략지역인 명품 복합도시 토지이용 조감도. 투자 유치와 상호 연계성에서 유리한 방사형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5대 선도사업은 산업·관광·국제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명품 복합도시 건설,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의 명소화, 매립토 확보와 조달, 방수제 착공, 만경·동진강 하천 종합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고 약 2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중 용지 조성비는 13조원(62.5퍼센트), 기반시설 설치비 4조8천1백억원(23.1퍼센트), 수질 개선 대책비는 2조9천9백억원(14.4퍼센트)으로 예상된다.

수면을 포함해 총면적이 4백1 제곱킬로미터(서울의 3분의 2 크기)에 달하는 새만금 개발은 이번 종합실천계획 확정으로 좀 더 가시화되고 이미 추진 중인 개별 사업들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4월 방조제 준공식을 계기로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비전과 글로벌 네임을 활용한 국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이병국 단장은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냄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새만금은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우리 후손과 세계인 모두가 주목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새만금의 글로벌 네임 '아리울'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이 'Ariul(아리울)'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네임을 얻었다. 아리울은 물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아리'와 울타리, 터전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울'을 합친 말. 내외국인 선호도 조사 결과 외국인도 발음하기 쉽고 '물의 도시'라는 새만금의 특성도 잘 살린 이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리울은 앞으로 해외홍보 마케팅과 새만금 이미지 개선에 주로 활용되며 기존의 '새만금'도 고유 명칭으로 계속 사용된다.

'세계 1등' 대한민국 전자정부

2010 유엔 전자정부 평가 190여 개 회원국 중 당당 '1위'

전자민원 G4C 사이트 www.egov.go.kr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정보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최근 발표된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준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랐다. 반면 일본의 전자정부 준비지수 순위는 2008년 11위에서 올해 19위로, 미국은 4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 또 미국의 온라인 참여지수 순위는 2008년 1위에서 올해 7위로 내려앉았고, 일본은 6위에서 4위로 약간 올랐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자기 일처럼 뿌듯해했다. 경기 포천시에 사는 기업인 손진영(45) 씨는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1위에 올라 자랑스럽다"며 "요즘 전자정부 덕을 많이 본다. 일할 때 들이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되고, 거래처에서도 업무처리를 빨리 해준다며 좋아한다"고 말했다.

서울 자양동에 사는 주부 서경희 씨는 "얼마 전 이웃에게서 가정용 PC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전자민원 G4C 사이트'(www.egov.go.kr)를 알게 됐다"면서 "직접 이용해보니 우리 전자정부 웹사이트 수준은 세계 1위에 오를 만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칭찬했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는 국가 간 전자정부 발전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상은 1백90여 개의 유엔 회원국이며 평가 업무는 유엔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DESA)에서 맡는다.

2008년까지만 해도 전자정부 준비지수 6위, 온라인 참여지수 2위에 그쳤던 우리나라가 두 지수에서 모두 1위를 휩쓸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향후 글로벌 전자정부를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가 최근 정보기술(IT) 관련 국제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돼 더욱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 컨트롤 타워 정립 등을 추진해온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정부는 기존 정보화 정책 방향을 정보화 활용과 소통·융합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해 IT 특보 임명, 투자 확대 등 추진 기반을 정비했다.

웹 수준·온라인 참여지수 '10점 만점에 10점'

이에 따라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의성, 안전성 등을 측정하는 '웹 수준 지수'와 온라인 정책 참여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온라인 참여지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점(1.0)을 획득했다. 두 지표의 상승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등극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올해 전자정부 평가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3월부터 관계 부처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온 행정안전부도 이번 성과의 주역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동아DB

한국의 전자정부는 서비스의 편의성을 측정하는 '웹 수준 지수'와 온라인 정책 참여 용이성을 나타내는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

3월 '유엔 전자정부지수 제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전자정부지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간의 취약 요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TF 운영으로 발굴한 개선 과제는 네 차례의 자체 점검을 거쳐 하나하나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유엔 평가기관에 대한 한국 전자정부 홍보, 평가기관 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전자정부 추진 의지와 그간의 정책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도 맡았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이번 성과로 '정부가 정보화와 IT를 홀대한다'는 그간의 우려를 씻어내고, 우리나라 국가정보화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입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을 계기로 국가정보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화 투자 확대와 범국가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등 정보화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전자정부 선도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공헌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박성일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국민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하게…"

한국의 전자정부는 해외에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전자정부 모델을 배우는가 하면, 이들 국가에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한국 정부 관계자를 초빙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과 해외 홍보,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박성일 정보화기획관에게 유엔 전자정부 1위의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을 물었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 1위의 의미는.

유엔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부 웹사이트를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시민의 웹사이트 이용 편의성, 민원 접수·처리의 효율성 및 온라인을 통한 정책참여 부문에서 세계 최초로 만점을 받았다.

이는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추진한 우리 전자정부 서비스의 우수성과 세계 정보기술(IT)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과거에 비해 이번에 특히 더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및 인프라 고도화 수준 등을 측정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의 성과가 눈부시다. 2008년 6위에서 이번에 1위로 도약했다. 또 온라인을 통한 시민의 정부 정책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온라인 참여지수'는 2위에서 1위로 올랐다.

1위에 오른 비결은.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국가정보화 정책 방향을 '촉진'에서 '활용'과 '통합' 중심으로 전환했다. 시민의 정부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정보보호 강화 등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 우리 국민이 더 신속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요구함으로써 전자정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향후 전자정부 정책 방향은.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복합민원 온라인 일괄 처리,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선진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이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정부 선도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공헌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대한민국 전자정부 세계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

글 · 최은숙 기자

"CERN, 중이온가속기 건설 협력"

호이어 유럽핵공동연구기구 사무총장 방한

롤프디터 호이어 유럽핵공동연구기구(CERN) 사무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의 국제자문기구인 과학위원회 1호 위원으로 한국을 찾았다. 호이어 사무총장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만나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에서는 인력과 기술이 중요하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장기적으로 국가적 안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첫 번째 위원으로 위촉된 롤프디터 호이어 CERN 사무총장은 1월 22일 '국제협력과 혁신동력으로서 기초과학'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중이온가속기가 설치되면 한국이 연구 강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롤프디터 호이어(Rolf-Dieter Heuer) 유럽핵공동연구기구(CERN) 사무총장은 1월 22일 대덕특구 핵융합연구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이어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실험입자물리학자로 지난해 1월 CERN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CERN은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기 위해 '빅뱅 실험'을 준비 중인 세계 최대의 강입자가속기(LHC)가 있는 곳으로, 20개 회원국 3천명의 과학자뿐 아니라 매년 전 세계에서 1만여 명이 찾아와 연구하고 있다.

호이어 사무총장은 "가속기와 같은 거대 기초과학 연구와 극한연구는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많은 인재가 필요해 한 나라가 모든 것을 진행하긴 어렵다. 따라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설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CERN이 협력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며 "CERN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은 1954년에 만들어질 때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결국 CERN을 통해서 기초과학이 급속히 발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초기술연구회 국제자문위원에 호이어 사무총장 선임

호이어 사무총장의 방한은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가 국제자문기구로 '과학위원회'를 구성하고, 호이어 사무총장을 첫 번째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이뤄졌다. 과학위원회는 연구회 및 소관 13개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사업과 운영 방향, 국제협력과 연구 성과 홍보 등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나 일본의 리켄연구소와 같은 선진 연구기관에서는 이미 과학위원회를 두고 연구 분야 선정, 연구전략 수립 등에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세계적 수준의 수월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다.

호이어 사무총장은 “연구정책에서 독립적인 자문기관은 필수”라며 “외부에서 다양한 인사가 여러 시각을 갖고 연구정책을 다룰 수 있어야 신뢰받는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나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묻는 정 총리의 질문에 호이어 총장은 “한국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기초연구가 국가의 안녕을 좌우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운찬 총리와 호이어 사무총장의 일문일답이다.

정 총리 한국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기획하고 있고, 거기에 기초과학연구소와 중이온가속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속기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이어 총장 가속기는 빅뱅 후에 일어나는 우주의 초기 상태 연구와 그 후에 생성된 입자의 형성 과정 등 기초과학 연구에 쓰일 뿐 아니라 응용연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속기는 암 치료에도 이용되고 재료의 속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 총리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도 CERN과 같은 세계적인 과학단지로 육성하고 싶은데, CERN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호이어 총장 20년 전 CERN이 만든 월드와이드웹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인류가 필요로 하는 기초과학을 전 세계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이 기술을 공유해 전파하는 게 CERN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CERN에는 회원국 과학자뿐 아니라 전 세계 97개국 과학자들이 찾아와 연구를 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도 61명의 과학자가 방문했습니다.

〈월드와이드웹(www)은 1989년 CERN의 연구원인 팀 버너스리가 창안해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 원래 목적은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견해와 논평을 주고받기 위한 것이다.〉

정 총리 CERN은 소재지인 스위스나 제네바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요.

호이어 총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CERN은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혜택은 회원국에 골고루 돌아가야 하지만, 작은 계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네바나 주변의 스위스 업체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세계적인 석학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젊은 두뇌들이 모여듭니다.

연합

정운찬 국무총리는 1월 21일 롤프디터 호이어 CERN 사무총장을 만나 과학비즈니스벨트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기초연구가 국가의 안녕을 좌우한다. 한국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정 총리 연구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연구 성과는 어떻게 공유합니까.

호이어 총장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1년 예산을 결정하고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분담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공유합니다. 우리는 비상업적 기구이고 예산도 공공기금인 만큼 연구 결과도 공공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도 협조 동의를 통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동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합니다. 한국과도 양해각서(MOU)를 맺고 있어서 공동연구를 합니다.

정 총리 기초연구와 응용과학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호이어 총장 기초와 응용의 경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응용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CERN에서는 가속기뿐 아니라 가속기에서 나오는 입자를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입자 검출 기술은 의학용으로 많은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속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 기술도 CERN에서 개발됩니다.

정 총리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는 많이 하는데 응용에 치우쳐 있어 이제는 응용보다 기초를 중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호이어 총장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인력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도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연구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면 장기적인 국가적 안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대학생의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사회인의 능력으로 상환합니다

호텔조리학과
최원준군에게
빌려주고

한식조리사
최원준씨에게
받습니다

경영학과
김다영양에게
빌려주고

해외펀드매니저
김다영씨에게
받습니다

항공기계과
정건우군에게
빌려주고

항공정비사
정건우씨에게
받습니다

반갑다 『든든학자금』

2010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출학자금 상환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걱정없이 -
-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
-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이 시작되는 제도

이제, 등록금 걱정없이 꿈의 전원을 항상 켜두세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대출대상 : 소득7분위(2009년 2학기 기준 연 소득인정액 4,839만원) 이하인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 대출금액 :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무상지원)
-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2009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
- 상환방법 :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

業

경제가 살아난다 일자리를 늘리자 UP!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요동치던 지난해, 한국경제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회복세를 보여줬다.
연말에는 사상 최대인 4백26억7천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첫 원전(原電) 수출의 대업도 이뤄냈다.
기업들도 투자 확대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러나 고용 여건은 아직 이러한 경기 흐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다각적인 고용 창출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줄 고용 확대는 2010년 대한민국의 힘찬 비상(飛上)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일자리 창출

일러스트 · 이우정

정부는 올해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취업자를 25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고용률도 증가세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취업 걱정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고용 창출은 올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그간 거듭돼온 '고용 없는 성장'에 마침표를 찍고, 고용 환경과 살림살이를 모두 활짝 펴는 희망찬 내일을 열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밭을 일구고 기업이 씨를 뿌려 일자리 '수확량'을 늘려나가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우리 국민은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선 낙관하면서도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한국은행의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3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내리 변함이 없다. CSI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로 100을 웃돌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뜻. 이와 대조적으로 고용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취업기회 전망 CSI는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한 98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기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러한 국민의 심리에서 읽을 수 있듯,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경기회복과 기저효과(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경제 상황이 부풀려지거나 위축되는 현상)로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고용 환경에는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비(非)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7월을 저점으로 계속 늘어나는 등 민간 부문 일자리는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용률도 2008년 59.5퍼센트에서 지난해 58.6퍼센트로, 경제활동참가율도 2008년 61.5퍼센트에서 지난해 60.8퍼센트

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 -4.2퍼센트, 2분기 -2.2퍼센트, 3분기 0.9퍼센트, 4분기 6.0퍼센트로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도 고용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문도 열릴 것이란 기대감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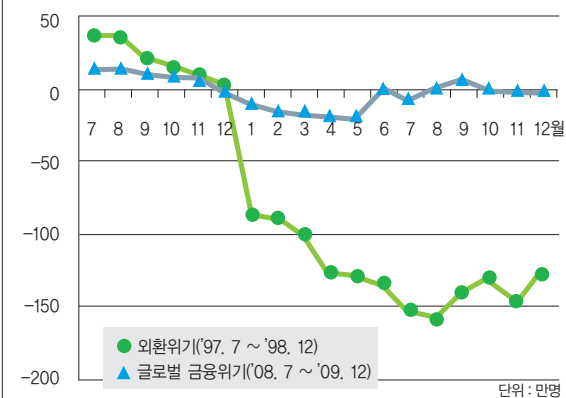
이에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1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인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제 개발, 법률 제정,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정부는 고용률을 경제정책 핵심 지표의 하나로 삼고,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뿐 아니라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포괄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25만명+α'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우선 고용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단기대응책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올해 안에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늘려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고 실업률도 3퍼센트대 초반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10년 이내에 고용률 60퍼센트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비전을 갖고 출범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로 삼고 2008년부터 줄기찬 노력을 쏟아왔다. 경제위기 때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방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턴제도와 일자리 나누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에겐 현장 경험과 취업 기회를, 소외계층에겐 희망찬 삶을 안겨줬다. 또 다채로운 직업훈련을 실시해 경력단절 여성과 퇴직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은 2008년보다 4만명이 증가한 15만 3천명으로, 이 중 8만7천7백79명이 수료를 마쳤으며 54.4퍼센트가 취업에 성공했다.

한국보그워너티에스는 최근에 닥친 매출 급감 위기를 노사화합과 고통분담으로 극복했다. 사진은 태안 기름방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 회사 직원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지난해에는 훈련생이 좀 더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범 사업으로 펼쳐 좋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구직자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 취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 고용 주체인 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터를 닦는 일 정도까지가 정부의 몫. 구직자가 직업으로 삼을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일은 기업이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사회에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론 기업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순 없겠지만, 노와 사가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노사화합으로 상생의 길을 찾으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양보교섭과 비용절감으로 구조조정 없는 고용 안정을 이뤘을 뿐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1백명, 하반기 3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섰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국보그워너티에스도 최근 매출액이 40퍼센트나 줄어 큰 위기에 빠졌으나 단 1명도 감원하지 않고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전 직원의 고용 보장과 경영위기 극복을 이끌었다.

정부는 자식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취업 희망자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업자들은 소중한 일터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가정과 기업,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꿈꾸는 2010년의 청사진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고교생 누나부터 할아버지까지 고용이네 가족 일자리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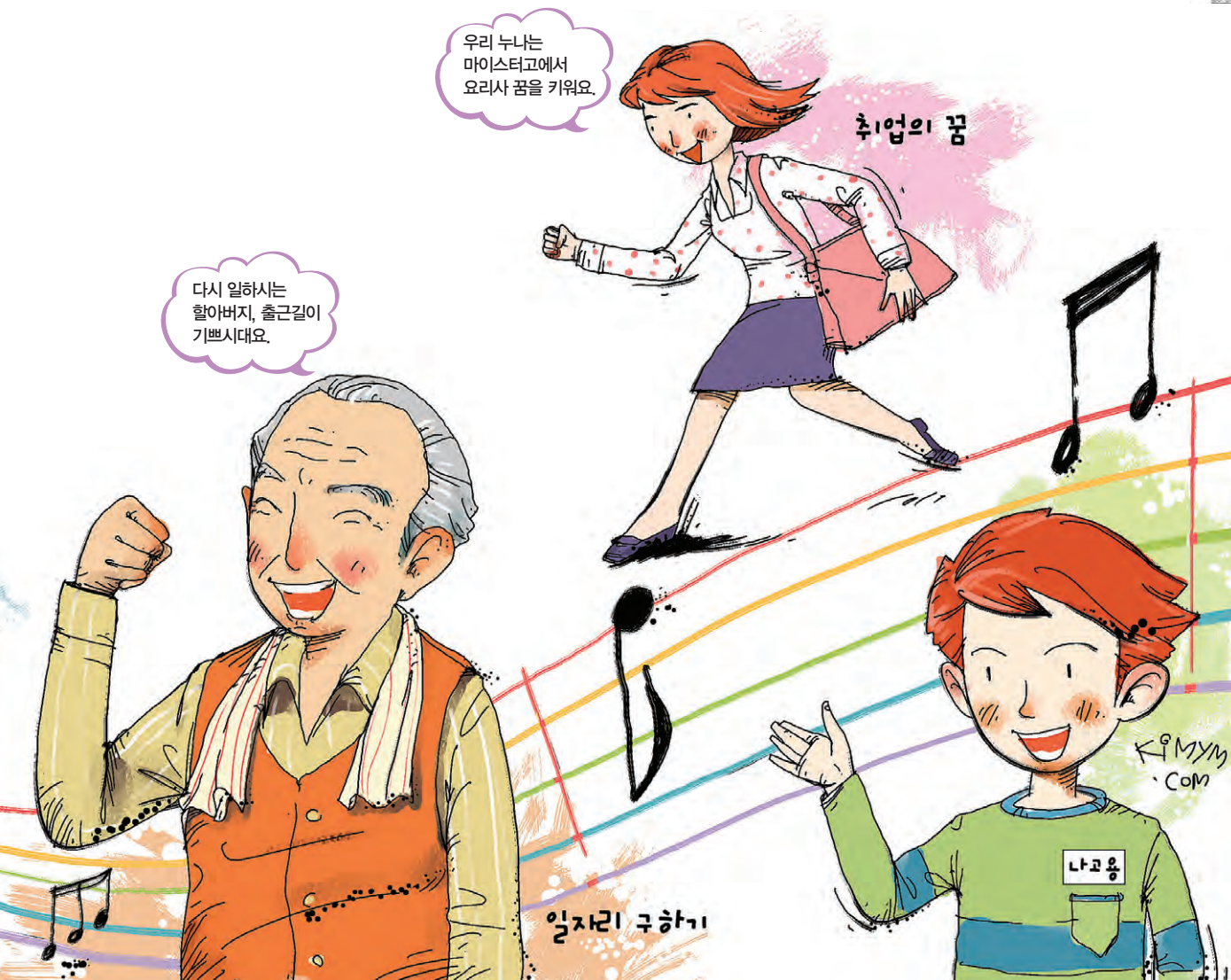
사례별로 알아보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정부는 1월 21일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을 수반하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 로 시급한 고용 현안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 고용정책을 가상의 '고용이네 가족'을 통해 사례별로 살펴봤다.

초등학교 5학년 개구쟁이 고용이네 가족은 고용이 아빠와 엄마, 올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누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 삼촌과 할아버지입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고용이네 가족의 취업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매일 교내 방과후 교실에서 원어민 영어공부와 컴퓨터, 바이올린 등 특기적성교육을 받는 데 재미 들린 고용이를 제외하면 멀게, 혹은 가깝게 일자리 걱정을 해야 하는 고용이네 가족의 일자리 날씨는 2010년 1월 현재 아직 흐린 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열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정부의 노력 덕분에 고용이네 가족의 일자리 날씨는 차츰 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이네 가족의 각자 노력에 정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고

일러스트·김영민

용이네 일자리 날씨는 머잖아 따뜻한 햇살을 보게 될 겁니다.

삼촌의 청년취업

청년 전용 취업사이트에서 맞춤형 일자리 알선

아무래도 지금 취직 문제가 가장 절박한 것은 고용이 삼촌입니다. 올봄 대학을 졸업하는 고용이 삼촌은 여자친구랑 결혼도 해야죠, 집 장만도 해야죠, 얼른 일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2만7천명 감소했다는 소식에 고용이 삼촌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청년실업이 심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죠. 국제노동기구(ILO)의 실업률 통계(1월 26일 발표)를 봐도 전 세계에서 청년실업이 2년 새 1천만명이나 늘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을 보니 고용이 삼촌은 '아자!' 하고 기운이 납니다. 구인과 구직 관리를 위한 기본 시스템인 청년 전용 취업사이트 구축이 먼저 눈에 번쩍 뜨입니다. 지금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청년층에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니 구직과 구인을 제대로 짝지워주자는 거죠.

노동부 워크넷(work.go.kr)에서 대학·전문계고 졸업 구직자 80만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인데, 이를 취업애로계층(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으로 확대해 구직 수요 정보를 총망라하겠다는 겁니다.

'구직'이 있으면 '구인'도 찾아야죠.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 중인 우량중소기업 DB(6만 개)에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동종업계 평균임금보다 낮은 빈 일자리) DB(10만 개)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일자리 찾기가 가능합니다. 당장 취업이 필요한 경우 △81개 전국 고용지원센터 △1백40개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7천여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받게 됩니다.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활성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취업시켰을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취업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올 4월까지 직업훈련 희망자의 훈련과정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식포털사이트가 만들어진다는 소식도 반갑습니다. 정부는 구직자가 기능직 일자리를 위해 교육훈련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중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장기 저리로 빌려줘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겁니다.

창업을 원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습니다. 법인 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법인 설립 절차(8단계→4단계)와 기간(14일→7일)이 단축됩니다. 모태펀드와 민간 출자로 3조5천억원(2010년 중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돼 1인 창조기업과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 금융지원을 합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아니지만 사회경험도 쌓을 겸 청년인턴제에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에선 청년인턴 5천명을 채용하며 1백대 민간기업도 1만1천명을 뽑습니다.

엄마의 재취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부터 취업까지

고용이 엄마는 고용이가 유치원 다닐 무렵까지 사무직에 근무하다 고용이 남매를 돌봐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고용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출산과 육아기에 노동시장 이탈이 가장 많고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고용이 엄마 같은 여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31일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10~2014)'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입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국가계획으로,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이탈해 있던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4대 정책영역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 기본계획으로 먼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기능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2년까지 1백곳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훈련·취업 알선기관 및 돌봄 서비스 기관 등 관련 정보를 망라한 취업정보자료가 발간됩니다.

취업 의사가 있으나 육아나 돌봄 때문에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구직자 및 훈련생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둘째, 돌봄과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표준화합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며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도 늘려나가게 됩니다.

셋째,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일자리(퍼플잡)가 확산됩니다. 공공 부문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를 늘리고, 단시간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 촉진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넷째,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단위 양육과 가사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단절 기간 등 경력단절여성 대상 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구직과 구인정보를 연계하는 통합DB가 구축되면 구직자는 전국의 81개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부고용지원센터.

정부는 단기적으로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제조업의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자 합니다. 또 여성, 청년,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아빠의 취업 이모작

임금피크제로 현직 유지… 전직 지원으로 안심

40대 후반인 고용이 아빠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1세대(7백12만명)입니다. 곧 다가올 대량 퇴직과 더불어 재취업이 필요한 세대가 바로 고용이 아빠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베이비부머 2세대(1964~1972년생·7백43만4천명)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1세대는 조기퇴직 압박을 받지만 저학력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머잖아 50, 60대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용이 아빠는 재취업과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베이비부머에게 일단 가장 반가운 정부 정책이 고용 연장 관련 정책입니다.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등을 확산시켜 임금을 유연화함으로써 고령자가 현직을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거죠.

실직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유연근로제, 단시간 근로 등 근로 형태를 다양화화는 정책을 펴고, 전직 지원(대기업 퇴직인력과 중소기업 매칭, 고령자 인재은행 등) 사업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안심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일자리 구하기

지역향토자원 조사 · 희망근로로 제2의 인생을

노인에게 일자리는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아직 일할 기운이 남아 있는 고용이 할아버지에게 은퇴 후 그냥 노는 일은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11.4퍼센트였습니다. 물론 단순 근로가 대부분이지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고용이 할아버지와 같은 고령자라면 정부가 시행하는 희망근로를 챙겨볼 수 있습니다. 올해 희망근로는 총사업비 5천7백27억원을 투입해 총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됩니다.

또 지자체의 경상경비, 행사비 등을 5퍼센트 절감해 3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만드는 지역향토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3만 개)도 고령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고령자 종합인재은행,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등도 고령자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누나의 취업 로망

마이스터고 진학으로 요리 명장의 꿈 키워요

올봄 고등학생이 되는 고용이 누나는 취업에 대해 기존 세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흔한 '진학 코스'를 걷는 대신 올봄 문을 여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기를 좋아한 고용이 누나는 마이스터고에서 조리를 배울 겁니다.

4년제 대학 졸업생 수가 급증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마이스터고를 택한 고용이 누나에 대해 고용이 부모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취직을 할 수도,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교 졸업 후 당장 취업이 안 되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위한 전문인턴제를 정부가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인턴제는 인력 수요가 큰 분야의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로, 올해 중 전문인턴 1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개월간 전문인턴 임금의 50퍼센트를 채용기업에 지원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 지원을 6개월 추가한다는 점에서도 청년인턴제와 같아 보이지만 직장 경력 제한을 폐지하고 외부기관에 위탁훈련을 시키며 인턴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청년인턴과 다릅니다.

굳이 대학 진학에 욕심내지 않는다면 일반 고교 졸업 후에도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아카데미 설립이 추진되어 산업용 로봇제어, 항공기 정비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기술인력 2만명이 양성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민간 훈련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훈련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진행되며 현재 미취업 중인 사람은 누구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훈련 참여자에게는 매월 교통비와 식비, 훈련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고용이네 가족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장기 고용확대 정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먼저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제조업의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자 합니다. 광범한 통합 고용정보망을 구축해 고용이네 가족과 같은 모든 국민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날까지,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어려울 때 사람 뽑는 게 진짜 투자죠"

일자리 나눠 고용 늘리고 성장 이룬 기업들

남들은 경기가 어렵다고 직원들을 해고할 때 도리어 고용을 늘린 기업들이 있다. 이들 기업은 임금과 시간을 조정해 일자리를 나누고, 지역사회 중소기업들의 취업 도우미를 자청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함께 사는 길'을 찾았다.

옵토팩주식회사는 지난해 매출 4백억원 전액을 일본 및 중국 수출로 올린 알토란 같은 회사다.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창산업단지에 있는 이 회사의 주력 품목은 휴대전화용 이미지 센서. 해당 분야의 특화 기술을 인정받아 2008년 지식경제부 선정 벤처기업대상을 받기도 했다.

옵토팩은 지난해 1백32명의 인력을 새로 뽑았다. 현 직원 2백12명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새로 입사한 인력이다. 수출 주문이 밀려들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한 방법은 근로시간 줄이기. 지난해 초부터 2교대 12시간 근무를 3교대 8시간 근무로 바꿔 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공장을 하루 풀가동할 수 있었다. 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에 따라 뽑은 고졸, 대졸 인턴 28명을 인턴 기간이 끝난 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효과적인 인력 투입 덕분에 매출액도 껑충 뛰었다. 2008년 2백90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4백억원으로 37.9퍼센트나 뛰어오른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인턴 연구원으로 일하다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임기태(29) 씨는 "인턴 시절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조건으로 근무해서 뿌듯했다"면서 "최근 주임으로 승진했는데 유망하고 화기애애한 직장에서 일하니 살맛이 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사는 인근 지역 실업계고와 산학협력을 통해 고교 실습생을 계속 채용한 점에서도 칭찬할 만하다. 2008년에는

정경택 기자

휴대전화용 이미지 센서가 주력 품목인 옵토팩은
지난해 근무시간을 줄여 1백32명을 새로 채용했다.

15명, 지난해에는 31명이 근처 충북인터넷고등학교, 증평정보고등학교 졸업생들로 채워졌다.

옵토팩은 교대근무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꿨으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했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지원 사업인 '교대제 전환 지원금' 덕분이다. 교대제 전환 지원금은 교대제를 전환해 조를 늘려 근로자 수가 늘 경우 1인당 1분기에 1백80만원씩 지급된다. 옵토팩은 지난해에 1억4천8백여 만원을 지원받았다.

부산은행

김진혁 (부산은행 전포동 지점)

"취업 재수 끝 '평생직장' 잡았어요"

"재수생, 환영해요!"

김진혁(27) 씨가 지난해 말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낯익은 상사로부터 들은 얘기다. 그는 2008년 여름 부산은행 인턴 1기로 들어왔다가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그만두는 쓴맛을 봤다. 그래서 1년여간의 절치부심 끝에 부산은행에 재도전해 2009년 11월 정직원으로 최종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너무도 컸다. 인턴 시절 만난 상사를 연수원에서 다시 만나서 듣게 된 '재수생' 소리도 반갑기만 했다. 정식 입행은 1월 9일.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된 김 씨는 지금도 부산은행에 입사한 것이 꿈만 같다.

"2008년 여름에 은행 창구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보람이 컸기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하겠다'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인턴을 마치면 당연히 정직원이 될 거라는 오만한 기대가 무참히 깨졌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평생 반려자를 고르듯 이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삼아야겠다고요."

실패는 오히려 약이 됐다. 김 씨는 지난해 취업 재수생활 동안 '증권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상담사' 자격증을 따뒀다. 이들 자격증은 동아대 국문학과 출신인 그가 부산은행에 재도전할 때 확실한 '보증수표'가 돼줬다. 지금 맡고 있는 외환 업무도 파생상품상담사 자격증이 필수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두 가지를 조언하고 싶습니다. 면접관 앞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지원한 회사에서 정말로 일하고 싶은지 명쾌한 대답을 준비하라고요. 이 답을 준비해 둔다면 좁은 취업문도 활짝 열릴 겁니다."

임금 동결·삭감 '일자리 나누기'로 9만5천명 고용 창출

서울 은평구 대조동 신성교통주식회사는 근무일수를 월 15일(격일 근무)에서 14일로 줄이면서 신규 인력을 늘린 경우다. 2008년에 노사합의로 근무일수를 단 하루 줄였을 뿐이지만, 그 결과 56명이나 새로 채용할 수 있었다. 현재 버스 4백62대에 9백21명이 근무 중이다.

수출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 사례다. 수출보험공사는 임직원의 성과급을 반납한 비용으로 대졸 인턴사원 55명을 채용했고, 수출입은행은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임원들의 기본 연봉을 삭감해 대졸 인턴사원 60명을 채용했다.

또 울산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정년퇴직자 중 88퍼센트인 5백13명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임금은 종전의 80퍼센트를 지불하는 조건. 이처럼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고령자 고용 연장형 사업'도 일자리 나누기 유형에 속한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유지한 '일자리 나누기'는 지난해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등 공신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월 22일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일자리 나누기로 최소한 9만

5천명 이상의 고용 유지·창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7만1천명과 실업자 2만4천명을 일자리 나누기로 흡수한 결과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연구위원은 “2009년 10월 말 기준으로 1백인 이상 사업장 중 29퍼센트가 임금 조정, 근무 형태 조정 등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참여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하헌혁 실장은 “일자리 나누기는 대부분 근무시간 조정 없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임금 조정형’으로 진행됐다”면서 “올해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금 조정형보다는 선진국 방식의 ‘근무시간 조정형’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고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기업은행 등 금융권 취업 도우미 프로젝트 성과

“9개월 동안 월 평균 1백18개의 일자리를 연결한 셈입니다. 저희 센터에 구직을 요청한 분들의 취업 성공률이 42퍼센트를 넘었습니다. 앉아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구인 수요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덕분이죠.” 부산은행이 개설한 취업 도우미 ‘BS취업지원센터’ 장영주 팀장의 말이다.

BS취업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설립해 12월 말까지 1천62명의 구직자를 취업시켰다. 부산과 경남지역의 7백80개 중소기업에 소중한 일손들을 연결해준 것이다. 취업자의 연령은 30대 이하 6백35명, 40대 이상 4백27명으로 20대 신입부터 60대 재취업 인력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대부분 상용직 일자리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주로 부산은행의 거래처 기업에서 2천5백14건의 구인 신청을 받아 이뤄낸 성과다.

BS취업지원센터는 지난해 1천62명의 구직자를 취업시켰다. 부산과 경남지역의 7백80개 중소기업에 소중한 일손들을 연결해준 것이다. 취업자의 연령은 30대 이하 6백35명, 40대 이상 4백27명으로 20대 신입부터 60대 재취업 인력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다.

BS취업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 말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목표 아래 부산은행이 주축이 되어 부산시,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일보와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은행의 6천여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구인 수요를 계속 발굴했고, 은행 지점에 ‘구직 도우미 창구’를 개설해 구직 신청을 접수했다. 또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 시 우대, 여수신 수신료 1년 면제,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줬다. 구인·구직 실적이 좋은 은행 지점에는 매달 포상금을 지급해 격려했다.

특히 대형 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BS이동취업상담센터’는 이 지역 주민들의 커다란 성원을 받았다. 공단, 학교, 취업박람회 등 어디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면 찾아가 구인과 구직을 연결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폴리텍Ⅶ대학 등과 취업협약을 체결했고, 일자리

동아DB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7만2천여 명 줄었지만 일부 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대학생 취업박람회.

부산은행

부산은행의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부산은행은 거래처 기업들과 구직자를 적극 연결해 1천62명을 취직시켰다.

의 기회를 장애인, 고령자에게까지 넓혀 제공했다. 지난해 말 장애인 특별채용회에서 '착한 채용'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은행과 중소기업이 각각 장애인 5명을 채용한 것도 좋은 성과다.

지난해 12월 21일 부산은행은 이런 실적을 인정받아 노동부가 주관한 '2009 노사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자 시상식'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이 지역사회 살리기에도 공헌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올해 센터는 눈높이를 더 높게 잡고 있다. 부산지역 채용박람회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대학 등의 채용박람회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기업은행 잡월드 우수 중소에 1만명 취업 알선

이처럼 금융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취업 도우미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2월 중소기업 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은행과 조선일보가 함께 시작한 '청년 취업 1만명 프로젝트' 잡월드는 목표를 두 달 앞당긴 10월 말 1만 번째 중소기업 취업자를 배출했다.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신용등급 우량 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를 비롯한 우수 중소기업 3만4천여 곳이 잡월드의 회원으로 가입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내놓았고 이 중 6천7백여 업체가 1만여 명을 채용한 것이다.

경기 성남시의 물류 아웃소싱 회사인 삼진지에스는 잡월드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47명의 정규직을 채용했다. 휴대전화와 차량용 카메라를 제조하는 엠씨넥스는 24명을 뽑았다. 강릉건설 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도 잡월드의 전국 인재풀을 활용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올해 잡월드는 취업 2만명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최근에는 인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력과 기술이 뛰어난 인재를 모은 지식·기술인재관, 중·장년층을 위한 4050 채용관 등을 추가했다.

또한 청년인턴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력해 정규직 1인당 월 1백만원씩 연간 1천2백만원, 총 3백50억원을 지원하는 'job-S.O.S 4U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그 결과 7월부터 10월 말까지 1천1백78개 중소기업에서 2천9백80명의 정규직을 채용했다.

민관 협력도 채용시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 을지로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와 근처 청계천광장에서 열리는 '청계천 잡페어'는 노동부와 서울시가 주관해 2008년 4월부터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까지 22회가 열려 총 8백87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G

글 · 최은숙 기자

천지은

천지은 (애플애드벤처 광고팀)

"인력채용 패키지로 적성 딱 맞는 일 찾았죠"

"광고와 디자인 업무를 병행하니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양쪽 일을 잘 알고 대처하니 광고주들도 환영하십니다."

활짝 웃는 얼굴과 서글서글한 미소가 매력적인 천지은(28) 씨는 일솜씨도 팔방미인이다. 대구시 대봉동 애플애드벤처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7월. 인턴 3개월을 거쳐 정직원이 됐는데, 현장 근무 7개월밖에 안 된 천 씨가 맡은 업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회사에서 운영을 대행하는 의류 쇼핑몰 홈페이지 디자인, 제품 MD, 이벤트 기획, 포털사이트 쇼핑 배너 광고 제작까지 1인 다역을 능숙하게 소화하고 있다.

패션회사에서 1년간 홍보 마케팅을 담당했던 천 씨는 자신의 적성에 잘 맞는 광고와 디자인 분야에 진출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해 봄 찾아간 곳이 대구달성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청의 인력채용 패키지과정. 교육 기간은 단 두 달이지만, 천 씨는 포토샵, 플래시 등 웹과 그래픽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익혔다. 이 과정을 마친 지난해 7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턴생활을 할 수 있었다. 회사도 그가 보여준 열정을 높이 평가해 인턴 후 정직원으로 채용했다.

"인턴생활 동안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기획부터 상품 선택, 디자인, 관리까지 업무를 맡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덕분에 어느 부문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천 씨는 얼마 전 인력채용 패키지 성공사례 모집에 응모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력채용 패키지과정과 인턴생활을 통해 제가 원하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열정을 불태우게 됐어요. 분명한 목표를 세운다면 아무리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경제가 4.5퍼센트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일자리 20만3천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사진은 작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뽑은 청년 인턴들.

대기업 · 中企 모두 "작년보다 더 뽑겠다"

올해는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시장의 빙하기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30대 그룹에 드는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 제조업체의 상반기 평균 채용 인원도 지난해보다 늘 전망이다.

"올해는 투자와 고용을 다 같이 늘리겠다."(1월 15일 30대 그룹 간담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상반기 인력 채용 계획 있다."(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처럼 연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올 고용시장이 풀릴 것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가장 먼저 희소식을 전한 곳은 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가 만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30대 그룹 간담회'. 여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대 그룹의 투자 계획을 지난해보다 16.3퍼센트 늘어난 87조1백50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을 전년보다 8.7퍼센트 확대한 7만9천1백99명으로 발표했다. 이 채용 인원은 2008년 대비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작년에 줄어든 취업자수 7만2천여 명을 웃도는 수치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올해 30대 그룹이 신규 채용하는 인원은 지난해 사라져버린 7만2천여 개의 일자리를 회복하고도 남는 규모"라면서 "향후 8년간 3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창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서도 채용시장을 낙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 제조업체 3백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 제조업 인력채용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39퍼센트가 올 상반기에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채용 계획 인원도 평균 1.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1.3명)보다 늘었다. 채용 이유로는 현재인원 절대 부족(40.2퍼센트), 자연 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35.9퍼센트)뿐 아니라 신규 투자와 생산규모 확대, 경기 호전 예상에 따라 신규 인원 필요 등을 꼽았다. 경기회복이 중소기업의 채용시장에 차츰 온기를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30대 그룹 7만9199명 신규 고용

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연구개발본부장은 "우리 경제가 올 한 해 4.5퍼센트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2009년에 비해 취업자수가 20만3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의 윤곽이 드러난 대기업 위주로 채용 규모를 소개한다.

재계 1순위인 삼성그룹은 올해 26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30

대 그룹 투자 총액의 30퍼센트에 달하는 액수다. 채용 인원은 30대 그룹 중 최대 규모인 1만9천명 선.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 1만7천여 명보다 2천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계열사별 세부 채용 계획은 3월에 확정된다.

LG그룹은 30대 그룹 중 가장 먼저 1월 중순에 세부 채용계획을 공개했다. 2008~2009년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규 채용 인력을 전년도보다 늘려온 LG그룹은 올해도 지난해(9천6백여 명)보다 늘린 1만여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다. 대졸 인력은 신입 4천2백여 명과 경력 1천8백여 명 등 6천여 명, 고졸 기능직은 4천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계열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곳은 LG디스플레이. 이 회사는 LCD 호황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e북 등 신사업 투자에 힘입어 올해 4천여 명(고졸 기능직 3천여 명, 대졸 1천6백여 명)을 신규 채용한다. 한편 LG전자는 연구개발(R&D) 인력 위주로 2천여 명, LG이노텍과 LG화학은 각각 1천명, 9백50명을 선발한다.

연초부터 올해 고용시장이 풀릴 것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전경련은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인원을 7만9천1백99명으로 발표했다. 또한 중소기업도 10곳 중 4곳이 상반기 인력 채용 계획을 밝혀 채용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채용시장에도 경기회복세 온기 미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5천여 명을 새로 채용한다. 특히 올해는 '미래 성장을 이끄는 최고의 글로벌 인재 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과제를 설정하고 자동차 부문, 현대제철, 기타 계열사에서 모두 5천여 명을 선발한다. 이 중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이 1천여 명이다.

포스코는 올해 국내 철강 부문 5조원, 신성장동력 투자 3조원 등 사상 최대 규모인 9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올 채용 규모는 2천5백여 명으로 경력직과 연구직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올해 지난해보다 10퍼센트 늘린 1천8백명 정도를 뽑는다. 올해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해 추가 채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보다 신규 투자를 50퍼센트 늘려 3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채용은 10퍼센트 늘린 7천5백여 명을 계획하고 있다.

GS그룹은 지난해(2천2백여 명)보다 10퍼센트 늘린 2천4백여 명을 채용한다. 허창수 GS 회장은 올해 초 전경련 간담회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그룹과 계열사의 모든 동력을 풀가동할 것"이라며 '공격 경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바이오연료, 태양광발전 등 신성장동력을 찾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의 신규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STX그룹은 해양·풍력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태양광 수출 기반을 다지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할 전망이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1천3백50명)보다 늘어난 2천명 선.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27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두산그룹은 지난해(1천7백명)보다 늘어난 2천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다. 대졸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절반씩 선발하며 인턴직 3백명이 포함된 채용 규모다.

한화그룹은 올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3천30명)보다 늘어난 3천4백명으로 정했다. 그룹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자원 개발, 태양광, 바이오산업 등 연구개발 분야의 경력사원 위주로 뽑을 계획이며, 대졸 신입사원은 6백명 선이다. CJ그룹은 3천명 가량을 신규 채용한다. 올해는 그룹 신규 투자 금액(1조2천5백37억원)의 절반을 외식과 극장, 게임 등 투자 대비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문화·서비스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신규 채용 인력도 이 분야에 집중 배치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이후 흑자로 돌아선 하이닉스는 올 투자 금액 2조3천억원 중 1조원을 청주공장에 투자하는데, 신규 채용 인력 6백여 명도 청주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컨버전스&스마트'를 제시한 KT는 매출 20조 목표 아래 3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새로 고용할 인력은 스마트폰,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1천명 선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올해 주요 기업 채용 계획

기업	투자 계획	채용 규모	비고
삼성	26조5천억원	1만9천명	3월 세부 채용계획 확정
LG	15조원	1만여 명	대졸 신입 및 경력 6천여 명, 고졸 기능직 4천여 명
현대·기아차	10조5천억원	5천여 명	대학생 인턴 1천여 명 별도
포스코	9조3천억원	2천5백여 명	경력직과 연구직 중심 채용
SK	7조원 이상	1천8백명	인턴십 확대해 채용 검토
롯데	3조5천억원	7천5백명	인턴 1천명 별도
STX	1조2천억원	2천명	연구개발 인력 확보 주력
두산	1조원	2천명	인턴 3백명 포함
한화	2조원	3천4백명	대졸 신입 6백명 포함
CJ	1조2천5백37억원	3천명	문화서비스업 집중 고용
GS	2조3천억원	2천4백여 명	신성장동력산업 주력
하이닉스	2조3천억원	6백여 명	청주공장 증설 관련 인력
KT	3조2천억원	1천명	스마트폰 등 혁신산업 인력 확대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각 기업

"봉사가 직업" 사회적기업 확산

제조업 넘어 녹색 무역까지 다양한 일자리 생겨

봉사활동이 나눔의 전부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부, 사회적기업과 같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나눔이 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근로빈곤층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만나보자.

경기 용인시 **쿠키트리**

친환경 건강쿠키 만들고 사회 환원도 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쿠키 판매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우뚝 선 곳이 있다. 경기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용인시 장애인재활자립장(대표 정성기) '쿠키트리'는 28명의 장애인들이 정성스럽게 친환경 건강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는 곳이다. 장애인의 직업 능력에 맞는 쿠키 생산설비와 장비를 마련하고 친환경 쿠키를 만들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이곳은 순 우리밀 쿠키 7종을 생산 판매하는 제과사업뿐 아니라 용인시민이 사용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산 판매를 대행하면서 독립적인 기업 운영체제를 갖췄다. 이곳은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수익금 전액의 재분배·재투자, 합리적인 예산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 노동부 인증을 받아 용인시의 첫 번째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 사회적기업으로 우뚝 선 쿠키트리는 온라인 쇼핑몰(cookietree.or.kr)을 열고 본격 판매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올해는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한다는 목표까지 세워놓았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일자리 늘리기와 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 혹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활동을 말한다.

동아DB

쿠키를 만들어 장애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의 사회적기업 '쿠키트리'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쿠키 만들기를 배우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최근 근로빈곤층에게 시급한 일자리 창출의 한 해법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열어 사회적기업 발굴에 나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 대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소셜벤처 경연대회도 사회적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녹색 사회적기업' 3백 개를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서울시립 하자센터 **노리단**

재활용품 악기로 취약계층에 문화예술 서비스

하지만 '사회적기업' 하면 왠지 딱딱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어감을 과감히 무너뜨린 곳이 있다면 단연 '노리단'을 꼽을 수 있다. 노리단은 2008년 11월 노동부가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36개 기업 중 유일한 문화·예술 분야의 뮤직 퍼포먼스 기업이다. 2004년 서울시와 연세대가 협력해 만든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일명 '하자센터')의 '첫 번째 사회 공공적 창업팀'으로, '일하며 배우고 논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탄생했다.

노리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했다는 것. 이들은 산업 폐자재와 생활용품을 재활용해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에 춤과 노래를 곁들인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들에게 재생산이 일궈내는 가치를 새삼 일깨워줬다. 특히 노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예술인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만하다.

이들의 주요 사업영역은 공연, 디자인, 교육 분야다. 창단 초기에는 주로 재활용품을 이용한 공연과 퍼포먼스에 주력했다.

동아DB

산업 폐자재와 생활용품을 이용한 독특한 공연으로 유명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노리단이 지난해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서울 중구 충무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광장에서 펼친 공연.

하지만 지금은 '핑퐁퐁'이라는 극장공연을 비롯해 재활용 악기·공공 공간 디자인뿐 아니라 청소년, 기업, 어린이등을 대상으로 한 창의력 워크숍과 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이를 통해 창단 첫해 11명을 시작으로 연 1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13억원(직원 86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 늘리기와 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녹색 사회적기업' 3백 개를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인터넷 쇼핑몰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개도국 공정거래 유도… 에코비즈니스 지향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글로벌 영역'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그 대표적인 예가 '페어트레이드 코리아'다. 한국의 '희망무역(Fair Trade)'을 선도하고자 2007년 5월 설립된 페어트레이드 코리아는 개발도상국가의 가난한 여성들이 만든 자연주의 의류와 생활용품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해 지속가능한 지구촌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희망무역이란 무역을 통해 가난한 국가의 생산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그 나라와 지역의 자연환경에 맞는 농법과 전통기술을 장려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에코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깨끗한 무역'이다.

페어트레이드 코리아가 취급하는 주요 품목은 의류와 패션소품, 아이들 장난감 등 섬유류에서부터 도자기, 식기, 천연비누, 유기농 차, 초콜릿, 양념 등 그 품목도 다양하다. 이들 모두 자연친화적으로 제작돼 판매되는 제품들.

따라서 페어트레이드 코리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자연보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마저 갖게 된다. 이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란 기본 개념을 뛰어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 환원의 포괄적 의미까지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G

글 · 강석인 객원기자

공무원·공기업 취업정보 다 있다

워크넷·나라일터 등 채용정보 한 번에

'나라일터'에는 중앙 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 관련 정보가 모두 실려 있다. 또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에서는 채용정보뿐 아니라 원서 접수 현황, 모의시험 문제, 합격자 수기 등도 볼 수 있다. 여기에 6만8천 건이 넘는 채용정보가 올라 있는 워크넷과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까지 이용하면 일자리 찾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이수빈(29) 씨에게 2008년은 특별한 해였다. 국가직과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에 연달아 합격한 것이다. 이 씨는 2007년 1월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공부에 뛰어들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면 노량진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오가는 시간이 아까웠던 그는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기로 했다.

하루 종일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일요일에는 무료 모의고사 문제를 내려받아 풀었다. 두 달에 한 과목씩 끝낼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2007년 4월 9급 국가직, 5월 9급 지방직, 7월 7급 국가

직 시험에 이어 가을에 있었던 경기도 7급 시험까지 모조리 떨어졌다. 이 씨는 절망감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2008년 7월의 7급 시험을 목표로 6개월만 더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고,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지냈다. 이 씨는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필요하고 한 가지 방법을 택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가끔 도서관에서 스터디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왠지 마음이 산란해질 것 같아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심리조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지쳐서 쉴 때도 꿈을 향해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최고의 직업은 공무원이다. 청년실업과 기업의 조기퇴직이 늘어나면서 정년과 각종 후생복리가 보장된 공무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평균 80 대 1이었고, 9급은 59 대 1이었다.

올해 국가직 공무원 2514명 채용키로

올해는 2천5백14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뽑는다. 지난해의 3천2백91명에 비해 24퍼센트 줄어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줄어들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으로 각 부처의 신규 채용 수요가 감소했지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감안해 충원 여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급별로는 5급 3백62명(행정고시 3백27명, 외무고시 35명), 7급 4백46명, 9급 1천7백6명을 선발한다. 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해서 모집한다. 장애인 구분모집 인원은 공안직을 제외한 총선발인원 1천9백72명 가운데 6.6퍼센트인 1백30명(7급 34명, 9급 96명)이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인원은 9급 공채 선발인원의 1퍼센트인 17명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10년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시도에서 선발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규모와 시험 일정도 발표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5백50명을 채용하고, 인천시는 1백92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공고 및 일정에 대한 세부계획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공채뿐 아니라 특별채용, 별정직 및 계약직, 비정규직 등 중앙 행정기관과 각 소속기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에 대한 모든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나라일터'에서 찾을 수 있다. 나라일터는 공직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각급 기관 간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교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 2008년 7월부터 운

각 시도에서 선발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규모와 시험 일정도 발표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5백50명을 채용하고, 인천시는 1백92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공고 및 일정에 대한 세부계획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되고 있다.

나라일터에는 1월 21일 현재 6천4백60여 건의 공직 채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5만7백96건의 일반 구직자 회원이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 기관을 관심채용정보로 등록해놓으면 주1회 채용정보를 알려주는 메일링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는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공감 코리아 상단에 있는 '일자리 정보'에는 채용정보뿐 아니라, 원서 접수 현황, 모의시험 문제 등이 수록된 시험정보,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의 수기, 정부의 일자리 정책까지 다 나와 있다. 채용정보는 채용기관이나 원서 마감일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다.

공무원 못지않게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장이 공기업이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에 나서고 있어 신규 채용은 많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채용 계획이 나오지 않은 곳이 많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7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턴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24일 한국도로공사는 인턴사원 48명을 정규직으로 임용했다. 정규직으로 임용된 인턴사원들은 지난해 2월 공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정규직 채용과 동일한 전형(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도 같은 평가를 거쳐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나라일터 주 1회 채용정보 메일링 서비스도

한국주택금융공사도 1월 4일 지난해 4월 입사한 청년인턴 20명 전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 유상규 부장은 "청년인턴을 선발할 때 이미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심사 등 정규직과 동일한 채용 절차를 거친 데다 8개월간의 인턴십과정을 통해 역량과 적성을 충분히 검증했다"며 "모든 인턴사원들이 실무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습기간 없이 곧바로 현업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업준비생들이 실무 경험을 익히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행정인턴이 도움이 된다.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행정안전부에서 인턴생활을 한 후 올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취업한 백경민(29) 씨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세상을 알게 됐고,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성과관리과에서 인턴생활을 한 백 씨는 2000년부터 생산된 합동평가 관련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화, 지방성과관리과의 연간 업무계획 작성, 합동평가시스템 관리매뉴얼 제작 등의 일을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을 평가하는 합동평가시스템(VPS) 관리매뉴얼은 1백 쪽에 달하는데, 꼬박 두 달간 시스템 문제를 정밀 분석해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이다.

"저를 믿고 중요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감사했고 작업을 끝냈을 때 가슴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인턴이 과연 도움이 될까 망설이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도전하고자 하는 자세가 돼 있다면 주저 말고 일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정보를 얻었다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게 취업에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확신이 없거나, 하고 싶은 일은 있어도 구체적인 기술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꼭 가보는 게 좋다.

공무원 · 공기업 취업 원한다면 '행정인턴'이 기회

올해 행정인턴은 정부 각 부처 및 시도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1월 11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다. 1만3천명을 채용하며, 청년 고용 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채용 인원의 75퍼센트인 1만명을 1월에 채용한다.

행정인턴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로, 최근 1년간 직장생활 경험이 6개월 미만인 29세 이하 구직자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특정 전공, 자격증 등을 요구하거나, 전문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지원 자격이 확대되기도 한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여성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구분 모집하거나 우선 채용한다.

올해 행정인턴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인턴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4일만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자기계발이나 취업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 비해 근무시간이 주당 10시간 줄어듦에 따라 월 급여는 70만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운영 경험을 살려 수행 업무와 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인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행정인턴들의 취업 희망분야를 반영해 개인 또는 팀별로 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 분야, 식품위생안전 분야, 정보보호서비스 분야 등 현장체험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게 하거나 우량 중소기업에서 수습을 하는 '민간기업 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행정인턴의 채용정보는 기관과 업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용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채용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노동부 일모아, 공감코리아 일자리정보, 각 기관

정경택 기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자리 찾는 일이 한결 쉬워진다. 사진은 서울 서부고용지원센터.

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정보가 많기로는 노동부 워크넷이 으뜸이다. 1월 28일 현재 채용정보 건수가 6만8천7백63건이고, 2009년 12월 말 개인회원은 3백65만8천5백53명, 기업회원은 57만6천2백67곳이다. 또 채용정보를 직종별, 지역별, 회사 규모별, 학력별, 임금별로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행사가 빠짐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저기 뒤질 필요 없이 워크넷만 이용해도 충분하다. 게다가 워크넷에 이력서를 올려놓으면 어느 회사에서 내 이력서를 열람했는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어 일자리 찾는 일이 한결 수월해진다.

워크넷은 검색 방식을 더 다양화해 오는 2월부터 소프트매칭을 도입한다. 기존의 구인·구직 검색에서는 검색자가 지정한 것과 동일한 것만 나오지만, 소프트매칭에서는 유사한 것까지 검색되기 때문에 원하는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또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워크넷 내 채용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의 입사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받아 서류심사를 대행해주는 e-채용마당 서비스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직자는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어 편리하고, 기업은 채용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노동부 워크넷 이용하면 취업 문 활짝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기본정보를 얻었다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게 취업에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맞는지 확신이 없거나,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술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망설이는 사람이라면 꼭 가보는 게 좋다.

직업지도 프로그램(CAP·Career Assistance Program)은 15~29세 젊은이를 대상으로 직업 탐색, 장점 강화, 면접 실습 등을 실시한다. 또 성취 프로그램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구직기술을 배워 빠른 시간 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해 9월 서울 서부고용지원센터의 성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정난희(25) 씨는 프로그램을 마친 지 한 달 만에 취업에 성공했다. 무역회사에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1년 동안 적잖이 마음고생을 했다는 정 씨는 특히 면접상황 대처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상황과 똑같이 면접을 하면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보면 자신도 모르는 좋지 않은 태도나 버릇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서울의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직자와 구인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연결하는 'Two to Fiv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면접이 이뤄지므로 취업 성공률이 한층 높다. 김윤진(29) 씨도 얼마 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통신회사에 취직했다.

이 밖에도 고용지원센터는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한 취업희망 프로그램, 고령 구직자를 위한 성실 프로그램, 주부를 위한 주부재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이용하면 된다. 단, 프로그램은 각 고용지원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워크넷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한편,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하면 직장생활을 더 오래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부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험DB와 워크넷DB 등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취업자의 고용 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가 구인과 구직의 불일치를 해결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

글 · 이혜련 기자

공기업 취업 노하우 한 권에 쏙

〈공기업 완전정복〉 알짜정보 가득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책이 있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낸 〈공기업 완전정복〉이 그것. 이 책에는 11개 공기업의 최근 채용 현황,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합격 노하우, 신입사원들이 알려주는 취업준비 요령, 합격자의 자기 소개서, 우수 논술답안지, 임원 면접 평가표 등 다른 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알짜정보가 가득하다.

책에 실린 내용은 강 의원이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강 의원은 일일 방문객 수가 3천5백명이 넘는 파워블로거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지진 참사를 겪고 있는 아이티를 찾아 현장 소식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청년실업과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공기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라 공기업을 직접 찾아가거나 자료를 받기 수월한 편이었지만, 전부 발품을 팔아 모은 정보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청년층 취업에 활용하는 게 어찌 보면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 아닐까요?"

강 의원은 소설 〈신〉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만 신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취업준비생을 신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올해 채용을 계획하는 공기업을 추가 취재해 〈공기업 완전정복 2〉를 낼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gosi.kr
나라일터 gojobs.mopas.go.kr
공감코리아 www.korea.kr
일모아 www.ilmoa.go.kr
워크넷 www.work.go.kr

청년은 구직난 中企는 구인난 청년취업 해법 '기술'에 있소이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잘못된 만남'을 해결해줄 방법으로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이 뜨고 있다.

#1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야 가슴을 확 펴고 사는 것 같아요."

주선경(29) 씨는 지난해 9월 간절했던 취업의 꿈을 이루게 됐다. 그의 업무는 자동차 관련 센서 및 엔코더 기술 관련 연구.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이 일을 하게 되리라곤 상상조차 못 했다. 고교 때 예체능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주 씨는 무용과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졸업 후 취업의 길은 험난했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며 극단이나 무용단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일자리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 부모님께 면목이 없어 프리랜서로 일해보기도 했으나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불규칙한 생활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다.

서른이 되기 전에 '나만의 일'을 하고 싶었다는 그는 여기서 쓰러지기보다는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게 기술 분야였다. 이 분야는 일단 파고들면 전문직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마음이 끌렸다.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에 입학한 그는 죽기 살기로 공부하며 전자통신과 관련된 4개의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입학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취업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했다.

#2 이성경(29) 씨는 대학 시절 법학을 전공했다.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제대 후부터 취업을 준비했지만 면접까지 갈 수 있었던 곳은 손에 꼽을 정도. 열심히 함께 준비한 친구들의 취업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러다간 언제까지나 '대학 5학년'으로 학교 언저리를 떠돌 것 같아 두려웠다. 이 씨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 이공계열 쪽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겠다고.

이 씨는 대학 졸업 직후 한국폴리텍대학에 입학했다. 전기제어과에서 태양광 관련 공학 공부를 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태양광 기술 관련 회사에 취직한 그는 "기술교육은 실업의 위기를 취업의 기회로 만들어줬다"며 기뻐했다.

청년취업의 희망은 '기술'에 있었다. 청년취업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르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산학 연계형 교육이 있다. 현장 위주의 기술·기능 교육을 배워 이와 연계된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이다. 특히 전공 분야를 앞세워 취업하는 이공계 출신에 비해 취업의 기회가 적은 인문계 출신에게 산학 연계형 교육 서비스나 직업훈련은 큰 도움이 된다.

지난해 12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0년 상반기에 경제가 회복되면 청년실업이 심각한데도 막상 현장에서는 기술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모순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문대나 지방대를 나와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씨와 이 씨처럼 인문계를 나온 청년들이 기술, 기능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다. 지난해 노동부가 공식 집계한 청년실업자(15~29세 기준)는 32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7.7퍼센트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술, 기능 등 전문 분야의 중소기업은 지난해 4월 16만3천명의 인원이 부족했다고 한다. 구직자인 청년과 구인업체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대학 진학률이 83.8퍼센트에 이를 만큼 고학력화돼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막연히 중소기업 일자리를 회피하는 경향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기술·기능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실업난 해소를 돕고자 한다.

그 선봉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 기술, 기능 위주의 현장교육을 바탕으로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학교들이다.

한국폴리텍大 취업률 90% 넘어

노동부 산하 특수 국책대학으로 실용적인 직업교육에 치중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11개 대학, 35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각 대학 취업률이 90퍼센트를 넘는다.

이곳은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입학자가 많다. 이들을 위해 융합형 기술인력 양성(Crossover Learning System) 제도를 만들었는데, 입학생들이 이전 대학에서 배운 인문계열 전공과 이곳에서 배우는 이공계열 전공을 접목해 단순 기능이 아닌 융합형 기술을 체득시킨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도 16년째 매년 90퍼센트가 넘는 취업률을 자랑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서정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취업난으로 고생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해 조리사 기능 과정을 운영한다. 6개월~1년 단기 코스를 수료하면 원하는 곳으로 취업 알선도 해준다.

인 과장은 "전체 교육의 70퍼센트 이상이 실무교육에 집중돼 있다"며 "현장 적응력이 높아 기업들이 인력개발원 수료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국비로 운영돼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교육 훈련비, 교재·실습비 등이 없고 2년 교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해 월 20만원의 훈련수당까지 지급한다.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1995년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4년제 공과대학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산업체 실무경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들의 취업난 극복을 지원한다.

'프로젝트 실습'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규 교육과정.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 산업현장에서 최소 4~8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취업난이 극심했던 지난해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정규직 취업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선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이 나왔다. 이 대책은 올해 당장 시행이 가능한 단기 대책과 현장 밀착형 대책 위주로 수립돼 청년과 중소기업 인력 매칭 44만명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훈련이 더욱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지역 산업체와 취업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개편해 5만5천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계획했다.

노동부는 한국폴리텍대학과 기업 간 훈련협약을 체결해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위한 취업 유망 분야를 마련해 6개월~1년 과정으로 대졸자 특별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인력 매칭 44만명 목표 맞춤형 교육 확대

노동부 고용정책과 김부희 서기관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청년 구직자들이 갖출 수 있는 맞춤훈련을 통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청년중소기업일자리 전략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 대책과 별개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용로봇제어, 항공기 정비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기술인력 2만명을 민간 훈련기관에 위탁 양성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국가 기간·전략산업 분야의 훈련을 실시해 관련 분야의 중간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훈련 후 평균 취업률은 77퍼센트에 달한다. 청년 구직자뿐만 아니라 현재 미취업 중인 사람 누구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훈련비가 전액 지원된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살림만 11년… 저도 일할 수 있나요?"

여성 새일센터 72곳, 취업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아내와 엄마가 된다는 사실은 이전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참고 체념하고 포기하던 시대는 갔다. 가사와 육아 걱정을 덜어주고 취업을 알선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저 같은 사람도 일할 곳이 있을까요?"

지난해 봄 전남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은 김주영(가명·39) 씨는 죄지은 사람마냥 위축된 모습으로 힘없이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1년간 세 남매를 키우면서 살림만 해왔다. 결혼생활 처음부터 전업주부로만 지낸 것은 아니다. 첫 직장에서 7년 동안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그런데 첫 아이 출산휴가를 마칠 즈음 복직하기 위해 아이 맡길 곳을 찾았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포기해야만 했고,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된 회사에 미련이 많이 남았다.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처지로는 '다시 일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김 씨의 재취업 꿈은 멀어져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보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공고를 보게 됐고 용기를 내어 센터를 찾아갔다.

지속적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김 씨는 자신감을 되찾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4개월여 동안 컴퓨터, 전산회계 등 다양한 자격증을 따낸 그는 결국 자신에게 취업의 의지를 불어넣어준 상담사들처럼 취업 설계사가 됐다. 김 씨는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끝까지 하겠다는 도전 의식만 가진다면 어떤 여성이든 취업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2 광주광역시에 사는 문영희(가명·55) 씨는 전업주부로 25년을 보냈다. 자녀들이 장성해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 자신을 떠올리면 참 열심히 살았다고 뿌듯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슬픔 속에 망연자실해 있던 문 씨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곳에서 취업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주부가 아닌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했다. 6개월간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을 따낸 끝에 원하던 곳으로 취업하게 됐다. 문 씨는 자신과 같은 전업주부 여성들에게 "일을 하면서 제2의 삶을 살게 됐다"며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라"고 조언했다.

전국 각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종로 새일센터에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상담받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하면 대개 '슈퍼우먼'을 꿈꾼다. 일터에서는 커리어우먼으로, 가정에서는 똑똑한 엄마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그러나 마음만큼 쉽지 않다. 돈도 많이 벌고 아이들도 멋지게 키우고 싶은데, 막상 현실에 매여 있다 보니 그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 같다.

청소년 성교육 상담가로 유명한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신의진(45) 교수와 스타 아나운서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오영실(45) 씨도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신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때 육아 스트레스가 심한 나머지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오 씨는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좋아하는 방송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15~64세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54.7퍼센트로 OECD 가입국 30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터키(26.7퍼센트)와 멕시코(43.4퍼센트)뿐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로는 출산과 육아 부담이 가장 크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학력 여성들도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고 재취업하는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노동시장의 고령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성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여 있는 여성(25~54세 기준)은 2008년 4백5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은 비경제활동 여성 인구의 반 정도 되는 2백61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육아 부담 덜기 위해 돌봄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

여성부 인력개발과 채명숙 사무관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기간은 평균 약 10년으로 대부분 첫 번째 일자리 종료 후 두 번째 일자리 진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경력단절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특히 일과 가정 모두에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4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60퍼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가운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가 눈에 띈다. 현재 여성부와 노동부는 공동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지정해 7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아DB

지난해 3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지게차 기사로 취업에 성공한 주부 채희주 씨.

> "다들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자신감을 되찾고 원하는 일자리에도 취업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은 새일센터를 찾아가서 필요한 정보를 구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서울 종로 새일센터 취업지원팀 김영실 팀장은 "다들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원하는 일자리에도 취업하고 있다"며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은 일단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의 새일센터를 한번 찾아가서 필요한 정보를 구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전국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은 총 4만2천4백8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연계해 3개월간 일을 배우는 주부인턴제의 경우 3천8백80명이 참여한 결과 1천9백3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렇듯 여성 취업을 돕는 새일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2012년까지 1백 군데로 늘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각 지역의 여성 취업지원기관을 통합해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에 힘쓸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취업 지원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취업의 최대 장애 요인인 가사·육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노동부 여성고용과 조상용 사무관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올해부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사·간병 도우미, 노인 돌보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보호제도를 마련해 경력단절여성들이 이 분야로도 취업할 수 있게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김민지 기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조영철 기자

"50 넘어도 한창"

임금피크제 등 고용 연장 기업 늘어

고령화 시대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재직자에게는 고용을 연장하고 전직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DB

올해 정부는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 및 연수와 취업을 연계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인원을 3천명으로 늘렸다. '2009 경기도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어르신들이 재봉기술 활용능력을 겨루고 있다.

"노인들이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동료들과 다짐했습니다."

선박 소(小)조립업체 명성산업 김창원 대표는 올해 74세다. 1994년 현대중공업을 정년퇴직한 후 일자리를 알아봤으나 마땅한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김 대표는 소규모 물량이라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야겠다는 다짐으로 1998년 10명의 정년퇴직자들을 모아 회사를 차렸다.

조선업의 '메카'인 울산엔 현대중공업의 대형 하도급 업체들이 많아 물량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고령자들이 하는 업체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하청업체 선정에서 밀려나는 서러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와 직원들은 납기, 품질, 안전의식 등에서 솔선수범했고 이런 면모가 소문이 나면서 믿고 일감을 맡기는 곳이 늘어났다.

지금 명성산업에는 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대부분 60세가 넘은 사람들이다. 물론 70세를 넘긴 초창기 멤버들도 건강하게 정년 걱정 없이 일하고 있다. 김 대표의 꿈은 2015년 1천명의 퇴직자와 함께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 정년 걱정 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회사를 나와 막막해하던 때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열명의 동료들과 구슬땀을 흘릴 때, 우리가 젊은 사람들 속에서 인정을 받아갈 때 그 벅차오르던 마음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고령화 시대엔 저희 같은 업체가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아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정부나 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업체들을 '우수 고령자 수용업체'로 지정해 원청사에 간단한 협조문을 보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퇴직자 모인 명성산업 "정년 걱정 없이 일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퍼센트를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고령사회, 2020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주축 생산동력이던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의 퇴직이 시작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0~2018년 사이에 베이비붐세대 7백12만명 중 3백11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평균 퇴직연령인 5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49.9퍼센트, 65~79세의 고용률은 36.7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55~79세의 57.1퍼센트가 일하고 싶어 하고, 그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31.2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일자리를 잡기란 쉽지 않다. 노동부가 2004년과 2005년 워크넷에 신청한 구인·구직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일자리 경쟁배수(신규 구인인원 대비 신규 구직자 수)는 17.67배로 29세 이하 청년층의 1.93배, 30~54세의 중년층의 1.88배에 비해 9배나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젊은 노동력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부족하며, 고용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 기업의 고령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작용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경하 선임연구원이 2008년 경인지역, 부산과 대구지역 등 산업단지에 있는 5인 이상 3백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고령인력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은 고령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흡'과 '생산성이 높지 않음'을 가장 많이 들었다.

동아DB

55세 이상의 고용률은 49.9퍼센트에 불과하고, 일자리가 없는 55~79세의 57.1퍼센트는 일자리를 원한다. '2009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들이 늘어서 있다.

임금피크제·퇴직자 계속고용 등 정부 지원 확대

반면 60세 이상 고령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86.6퍼센트가 '자신의 업무에 성실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선임연구원은 "고령인력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인력의 업무 수행력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지만 기업이 인지하는 고령인력의 생산성 수준은 고령자 고용 유무, 사업장 규모, 직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고령자들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고용주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50+세대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직자에게는 고용을 연장하고 전직 서비스를 강화하며, 실직자에게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취업 능력을 높이는 것이 그 골자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0+세대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직자에게는 고용을 연장하고 전직 서비스를 강화하며, 실직자에게는 일자리를 확충하고 취업 능력을 높이는 등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우선 고용 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근로시간 단축,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연장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수혜대상을 지난해 1천여 명에서 올해 2천5백여 명으로 늘리고, 임금피크제 도입 예정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도 지난해 23곳에서 48곳으로 확대한다.

또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이 지난해 5천7백90명에서 올해 8천7백90명으로,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은 지난해 3천2백68명에서 올해 4천3백1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직자의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대상을 지난해 7백명에서 올해 3천명으로 대폭 늘렸다.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상담-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이 패키지로 이뤄지며, 참여자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참여수당과 36만2천~40만2천원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훈련과 취업을 연계하는 고령자인력은행도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렸다.

또 저숙련 고령자에게는 아동 안전 보호, 문화재 보호, 숲 생태 해설, 환경 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17만6천 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인건비의 4분의 3(1백2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지원책 못지않게 고령자에게 친절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고용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는 한편, 고령자 고용강조주간, 고용포럼,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공동 대처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바텐더 · 컬러리스트 · 녹색자격증…

직능원 '10년 뒤 뜨는 직업' 선정

**평생직장은 사라졌다지만 평생직업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촉망받을 직업은 뭘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전망 지표 개발'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래 유망직업을 전망해봤다.**

서울 광화문 T칵테일바에서 일하는 백민석(27) 씨는 고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서빙을 시작한 것을 인연으로 지금은 이 바의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 진학했지만 백 씨는 칵테일 만드는 일이 적성에 맞아 조주사 자격증도 따는 등 실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 연봉도 적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아 늘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특수학교 교사 김지선(30) 씨. 대학 특수교육과를 나와 임용고시에 합격한 정식 교육공무원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 뭐가 다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특수교사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특수교사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음식 관련 서비스 업종 전망 좋은 직업군 1위

청소년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겐 현재 직업의 가치보다 미래의 전망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 모두 지금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다소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뒤의 전망은 밝아 보인다. 지금은 사회적 대우가 '보통' 수준인 바텐더나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대우가 10년 후엔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전망 지표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바텐더 등 음식 관련 서비스 업종이 10년 뒤엔 유망 직업군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한 외식체인업체 전시장에서 바텐더들이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2008년 직업전문가 1천82명을 대상으로 보상, 고용 현황, 고용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 여건, 직업 전문성, 고용평등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직업에 따라 수치를 환산해 종합한 '직업전망 지표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10개 직업군 가운데 요리사, 바텐더 등 음식 관련 서비스 업종이 10년 뒤엔 판검사, 변호사 등 오늘날의 '선망의 직업'을 누르고 전망 좋은 직업군 1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서비스업 중 직업전망 1위 직업은 판검사, 변호사 등이 포함된 법률·경찰·교도 관련직이며 음식 관련 서비스 업종은 5위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 현재는 전망이 '보통'이지만 10년 후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 직업으로는 광고·홍보 전문가, 마케팅 및 여론조사 전문가, 생명공학연구원, 조경 기술자, 비파괴 검사원 등이 꼽혔다. 반면 지금은 선망의 직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10년 후엔 그 가치가 다소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교사,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은행원, 전자·컴퓨터공학 기술자 등이었다.

진로적성 컨설팅업체 와이즈멘토의 조진표 대표는 "지금 교사와 공무원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고용안정성에 있는데, 미래엔 이러한 직업들의 고용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비스 업종에서 10년 후 전망이 높아지는 직업으로는 음식서비스 관련직에 이어 법률·경찰·교도 관련직이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교수, 연구원, 교사 등), 4위는 보건·의료 관련직(의사, 치과의사 등), 5위는 문화·예술·디자인 관련직(작가, 번역가, 통역가 등)이었다.

현재 근무 여건이 가장 좋은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지만 10년 뒤엔 자동차 조립 및 검사원이 꼽혔다. 여성에게 가장 유망한 직업은 현재와 10년 뒤 모두 약사와 한약사, 고령자에게 유망한 직업은 현재와 10년 뒤 모두 한의사가 꼽혔다.

동아DB

한국고용정보원은 유망 직종으로 컬러리스트를 선정했다. 제일모직 컬러리스트 김영미 씨가 의상 디자인에 어울리는 색상을 고르고 있다.

또한 현재 근무 여건이 가장 좋은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지만 10년 뒤엔 자동차 조립 및 검사원이 꼽혔다. 반면 현재 근무 여건이 최악인 직업은 연예인 매니저였고, 10년 뒤엔 감독 및 연출자로 예상됐다. 여성에게 가장 유망한 직업은 현재와 10년 뒤 모두 약사와 한약사, 고령자에게 유망한 직업은 현재와 10년 뒤 모두 한의사가 꼽혔다.

컬러리스트·소방설비기사 등 취업전망 밝아

틈새 인력시장과 자격증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대졸 이상 여성 구직자에게 가장 유망한 직종으로 컬러리스트를 선정했다. 컬러리스트는 섬유·패션업계에서 출발해 제품 디자인, 그래픽·영상, 미용, 출판, 정보기술(IT), 환경, 의료, 컨설팅업계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4월 처음으로 디자인 공무원직 공개 채용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컬러리스트로 활동하려면 컬러리스트산업기사(전문대 졸업자격)나 컬러리스트기사(4년제 대학 졸업자격) 시험에 응시하거나 디자인·미술 관련 학과를 나와 경력을 쌓아야 한다. 산업인력공단은 2002년부터 컬러리스트 국가공인시험(자격증)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컬러리스트기사 외에 임상병리사, 피부미용사, 웹디자인기능사, 토목구조기술사, 소방설비기사, 화훼장식기능사 등을 취업 전망이 좋은 자격증으로 추천했다.

최근 친환경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녹색자격증'을 만들 계획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팀 엄현석 과장은 "현재 하이브리드자동차정비기사, 태양광발전기사, 그린홈기사, 생태공간조성기사, 에코디자인기사, 환경영향평가기술사 같은 녹색자격증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와이즈멘토 조진표 대표는 "친환경 산업 발달로 미래엔 대체에너지 전문가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 자동화 추세에 맞춰 로봇 관련 직업도 전망이 밝다"고 내다봤다. G

글·최철호 객원기자

10년 후 유망 서비스업

순위	직업
1위	음식서비스 관련직
2위	법률·경찰·교도 관련직
3위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교수, 연구원, 교사 등)
4위	보건·의료 관련직(의사, 치과의사 등)
5위	문화·예술·디자인 관련직(작가, 번역가, 통역가 등)
6위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7위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8위	영업 및 판매 관련직
9위	운송 및 운전 관련직
10위	경비 및 청소 관련직

동아DB

프랜차이즈 창업 땐 안정성 > 성장성 > 적성

올해 경기가 호전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이 다시금 뜨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본부의 브랜드 마케팅과 노하우에 힘입어 좀 더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중에서도 유망한 프랜차이즈 창업 가이드를 소개한다.

동아DB

올해 유망한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커피전문점, 맥주전문점 등이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할 때는 브랜드의 대외 인지도, 가맹본부 신뢰도 등을 충분히 검토해 준비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4퍼센트 이상으로 전망되면서 창업,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국내 유통 분야에서 프랜차이즈는 연간 매출액 약 77조원, 가맹본부 약 2천4백26개, 가맹점 수 약 26만 개, 1백여 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악화 등을 고려해도 연평균 6퍼센트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가 2016년에는 1백2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60퍼센트 이상은 외식업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나머지는 판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예비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했다면 적합한 아이템, 브랜드의 대외 인지도, 가맹본부 신뢰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본부와 가맹점 간 윈윈 전략을 추구한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잇속만 챙기고 허위 과장이 많은 만큼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독자 창업이든 창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모방창업, 의지창업 등과 같은 막무가내식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창업시장에서 조기 퇴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은 "모든 일은 준비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오는 법인데, 이런 과정 없이 결과에만 집중하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시대의 흐름과 자신에게 맞는 업종 선정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업 정보는 의외로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그 정보 속에서 시장의 흐름이나 소비자의 소비패턴, 아이템의 활동, 업계 동향, 기타 다양한 정보를 얻어 자신의 창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과 검증성을 확보하고 있는 메이저급 신문기사를 탐독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전시박람회, 사업설명회 등지로 발품을 팔아 창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에 도배되다시피 한 보도자료, 검증하기 힘든 무차별 홍보성 블로그, 카페 등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혼란스런 정보가 되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창업의 문제점을 찾는다면 창업 실패율을 줄여 나갈 수 있다.

Step 1 안정성 높은 업종을 선정하라

수익률은 변동이 크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아야 한다. 불경기나 호경기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을 선정해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맥주전문점 2008년부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창업 아이템은 맥주전문점이다. 맥주전문점은 창업시장의 영원한 아

이템이라고 일컬어지는 치킨전문점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넓고 수요가 많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웰빙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이 저알코올 음료를 즐겨 마시는 것도 맥주가 계속 사랑받는 이유다. 여기에 맥주전문점들이 최근 메뉴를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높인 점도 인기를 되찾은 요인이다. 메뉴의 차별화, 인테리어의 차별화는 2010년 맥주전문점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고기전문점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량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육류 소비량의 확대는 자연히 창업시장에도 반영된다. 외식업 창업 아이템 중 고기 관련 아이템이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고기전문점 시장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그리고 원산지와 등급에 따라 고급형, 저가형으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가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계속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또한 고기전문점은 점심과 저녁을 동시에 운영하는 '이모작 운영'을 통해 수익을 배가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다만 창업 시 낮은 가격대를 책정하는 것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최상의 조건이지만, 품질이 떨어진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보다는 인건비나 기타 점포 운영비 등을 절약해 마진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Step 2 성장성 있는 업종을 선택하라

신규 업종은 아직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사회적 흐름과 소비자 욕구가 일치하는 성장기 업종을 선택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소비트렌드와 관련이 있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이라야 한다.

면(麵)전문점 지난해 큰 인기를 끈 아이템 가운데 하나가 면전문점이었다. '웰빙'이라는 사회적 트렌드에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소비자 심리가 더해져 20, 30대 젊은 소비자는 물론 중·장년층까지 고객으로 만들 수 있었다. 다만 면전문점은 유동성이 좋은 중심 상권에 입지해야 유리하다.

생활용품전문점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저가격 창업 아이템은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보통 프랜차이즈형으로 운영되는 생활용품 할인점은 상품 기획력(트렌드 상품 또는 계절상품 등), 반품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시장의 악화로 소비자들은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가치와 만족을 동시에 누리려는 구매심리를 이어가므로 고품질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가격 전략을 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

Step 3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밤낮없이 일해도 지치지 않는다. 일하는 과정이 재미있을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만족도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뒷받침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피부관리전문점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여성 인구의 적극적인 소비심리 확대로 미용 관련 상품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인 데다 미(美)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여성을 상대로 하는 뷰티산업 관련 업종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종은 여성을 상대로 하는 아이템인 만큼 여성의 심리를 잘 파악해 늘 고객에게 '새롭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커피전문점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직 후 창업 아이템 선호도를 조사해보면 커피전문점은 늘 3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다. 커피전문점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테이크아웃 형태인지, 점포형 창업인지, 고급화한 카페인지 등 창업자금 규모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한 자영 창업자의 경우는 입지 전략에 따른 맛과 서비스, 분위기 연출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G

글 · 강동완(머니투데이 창업센터 머니위크 편집국 산업팀장)

자영업 침체 '프랜차이즈'로 뚫는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2012년까지 가맹점 1천 개 이상 브랜드 1백 개 육성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개최 △프랜차이즈 지원을 위한 민간차원의 인증제 도입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리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해 11월 프랜차이즈 아카데미가 신설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행에 들어가 실무형과정 2회, 마케팅과정 2회, CEO조찬포럼 1회를 실시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은 민간차원의 인증제인 '상의 인증제'(가칭)를 도입하기 위해 업계 관련 1차 간담회를 열고 민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강화를 위한 공정위의 업무 분담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가 국회 심의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이상 2개 이상 직영점 운영 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는 특단의 법률 조항을 제정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번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는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Tel 02-2110-5141
대한상공회의소 Tel 02-6050-1491

세련된 전통시장 녹색을 입다

시장경영지원센터 '녹색시장 만들기' 시범 사업 성과

전통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인천시 부평역지하상가와 부평중앙지하상가, 제주 동문시장은 조명등을 LED로 교체해 시장이 훨씬 환해지고, 전기요금도 크게 줄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 '녹색시장' 사업의 시범 사례들이다.

지난 1월 4일 오후 4시. 쇼핑객들로 한창 붐비는 인천시 부평역지하상가는 '지하상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화사하다. 천장에서 밝은 흰색으로 비추는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등 덕분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상가의 천장과 일부 점포에 설치된 LED 조명등은 모두 1천5백 개.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자주 찾는 쇼핑객 김연화(32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씨는 "조명등만 바꿨을 뿐인데도 상가가 훨씬 화사해 보인다"며 놀라워했다.

비슷한 시기에 근처 부평중앙지하상가도 천장 조명등 1천 개를 LED로 교체했다. 이들 상가의 LED 설치는 부평역지하상가 연합회와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의 합작품이다. 상인들이 LED 교체 자금 3억3천2백만원의 절반을,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절반을 부담해 상가의 조명등을 교체한 것이다. 초기 투자가 적지 않지만 LED 설치에 따른 부수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게 김세훈 상인회 회장의 말이다.

"LED 조명등을 설치한 결과 자그마치 73퍼센트의 전력을 절감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곳 부평역지하상가만 해도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4천5백만~5천만원을 전기료로 냈습니다. 점포당 20만원 꼴이니 만만치 않았죠.

발열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고방전 램프(HQI) 전구는 전기료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열도 많이 발생해서 겨울에도 에어컨을 켜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에 비해 새로 설치된 LED는 와트수가 HQI의 4분의 1 수준이라 실내 온도가 섭씨 3, 4도씩 낮아져 에어컨 가동비도 크게 줄고 높은 조도로 상가가 훨씬 밝아지고 쾌적해졌습니다."

부평 지하상가 LED 전등 교체 "전기요금 절반 줄었죠"

점포에 LED를 설치한 상인들도 효과를 실감한다. 부평중앙지하상가에서 '김주얼리'를 운영하는 이종호 대표는 "예전에는 주황색, 노란색, 흰색 등 다양한 HQI 전구를 달아놓아 촌스러워 보였지만, 지금은 밝은 흰색으로 통일돼 고급스럽고 정돈된 분위기"라고 환영했다. HQI 전구 때문에 진열 제품의 색이 바래는 현상과 화재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김세훈 상인회 회장은 "지금은 통로 위주로 LED가 설치돼 있지만 앞으로는 점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할 경우 LED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LED는 제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수산시장 상인들도 크게

인천시 부평역지하상가는 지난해 12월 중순 천장과 일부 점포에 LED 조명등을 설치해 상가 내부가 훨씬 밝아지고 에너지 효율도 크게 높아졌다.

정경택 기자

제주 동문수산시장

제주 동문수산시장의 LED 조명 설치 전(왼쪽)과 설치 후(오른쪽).
LED는 전기료가 절약되고 발열량이 적어 생선의 선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환영한다.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첫 LED 지원 사례인 제주 동문수산시장은 지난해 여름, 점포 조명등을 모두 LED로 교체했다. 우중충한 시장 분위기가 흰색 LED 조명등 덕분에 대낮처럼 환해진 데다 생선의 선도를 유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동문수산시장 상인회 김태현 회장은 말한다.

이처럼 부평지역 지하상가 2곳과 제주 동문수산시장에 자금을 지원해 LED를 설치한 것은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한 '녹색시장(Green Market)' 사업의 시범 사례다.

녹색시장 사업은 LED와 같은 고효율 조명 설치를 포함해 전통시장을 친환경 녹색시장으로 육성하는 것. 녹색시장 사업에는 원산지 및 가격 표시, 청결 및 신선도 제고, 소포장과 녹색 친환경 포장용기 사용, 위생 개선 등도 포함된다.

올해에는 16곳을 녹색시장 사업지로 선정해 시장당 2천만~3천만원 등 총 4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녹색시장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시장에 불러모으겠다는 것이다.

시장 근처 상인대학…'찾아가는 교육' 기회 열어

현재 국내에는 전통시장 1천5백50여 곳이 있으며, 21만 개 점포에 36만명의 상인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전통시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5년 중소기업청 산하에 설립된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들을 위해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마케팅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성공사업으로 꼽히는 상인대학의 경우 2006년에 개설돼 지난해 말까지 1만여 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또 시장경영지원센터는 대형마트와 공동 쿠폰제 시행, 반짝세일과 정기세일 실시, 문전성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속초 중앙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서울 방학동 도깨비시장, 전남 장흥토요시장 등이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되살아난 전통시장들이다.

시장경영지원센터 정석연 원장은 "선진국일수록 전통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면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특수를 위해서 되살려야 할 문화상품"이라고 강조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INTERVIEW 정석연 시장경영지원센터 원장

"상인이 먼저 변해야 시장 전체가 발전"

정경택 기자

2008년 8월부터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정석연 원장은 서울 청계천시장 상인 출신이다. 1990년대 초 청계천 상가에서 종업원으로 출발한 정 원장은 2000년에는 청계천3가에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자석 부품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를 창업했다. 그동안 정 원장은 청계천 상인연합회 회장, 서울시 상인대책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진출로 전통시장의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유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SSM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을 법과 제도로 규제한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늘 '상인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합니다. 법과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시장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전통시장도 '개인 점포'보다는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절실합니다. 제가 상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를 상인들도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방안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죽고, 대형마트만 살아남을 경우 최종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됩니다. 작은 가게들이 문 닫은 후 대형마트가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거나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결같이 주장해온 것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공존공생입니다. 기업형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이익금 일부를 전통시장 발전기금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품질 개선, 공동 마케팅 등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하고요. 정부는 장기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두 시장을 함께 살려나가야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임무라면.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가 그 두 갈래인데요. 저희 시장경영지원센터는 경영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경영 마인드를 심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상인대학도 현지를 직접 찾아갑니다. 근처 사무실을 빌려 지역 상인들에게 교육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장사하는 시간을 빼앗는다고 반발이 많았어요. 이제는 상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요청할 정도입니다.

자전거 탈 때 '안전모' 잊지 마세요

자전거 음주운전도 불법… 자전거 안전종합대책 마련

최근 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퍼센트 감소했다. 그러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23퍼센트나 증가했다.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는 반면 자전거 안전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된다.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총 3천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조영철 기자

#1 경기 동두천시에 사는 최수진(76) 씨는 여든을 앞둔 나이지만 평소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당한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밤길에 자전거를 타다 최 씨의 자전거를 보지 못한 자동차에 받혀 넘어진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이후로 야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2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주부 김옥경(44) 씨는 지난해 12월 아들 민준(10) 군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는 사고를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쿵' 소리와 함께 뒤통수부터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김 씨의 아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김 씨는 평소 아들에게 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모 착용을 강조한 것이 아들의 생명을 살렸다며 안도했다.

조영철 기자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사고는 2003년 2백53명에서 2008년 3백10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2퍼센트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27퍼센트, 일본 14퍼센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 분담률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을 감안한다면 조속한 자전거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전거 복장, 운행규칙 등을 포함하는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정양기 사무관은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기준 강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안전성 확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 등 자전거 안전운행 관련 인프라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제한속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며 하루 통행차량 2천 대 이상인 도로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최소 유효폭을 확보한 보도에 한해 겸용도로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될 방침이다. 통행이 빈번한 주거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국도에 생활형 중심의 자전거도로 1천7백 킬로미터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총 연장 3천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건설하기로 했다.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전거 안전 이용체계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정양기 사무관은 "자전거 사망사고의 80퍼센트 이상은 머리 손상이 원인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작은 손상에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안전모 착용은 필수"라며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역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인들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지만 이를 강제로 시행하기엔 출퇴근 시 불편하다는 반발이 예상돼 추후 여론을 파악한 뒤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금지된다. 경찰청은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다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하루 車 통행량 2천 대 이상 도로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자전거 안전장비 기준도 마련했다. 자전거 내구성 강화를 위해 유럽 표준 시험항목(페달링 하중, 수직하중, 수평하중)을 추가했으며 자전거 출고 시 전조등, 반사체 부착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성능 기준을 마련했다.

또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활용해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를 동반 승차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전거의 도난, 분실 등을 막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강화키로 했으며, 자전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전거 거치대 및 주차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전거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생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등 교재를 보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에는 자전거 관련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정양기 사무관은 "자전거 사고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의 야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 넘게 차지한다"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르신들은 야간 운행을 자제하고, 야간 운행 시 밝은 녹색이나 노란색 등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아이폰, 잠든 한국시장을 깨우다

'손안의 PC' 스마트폰 시대 열려

'손안의 PC'로 불리는 스마트폰은 인터넷 검색, 풍부한 컨텐츠, PC 연계 기능 등이 장점이지만 기능을 제대로 모르고 샀다가는 '애물단지'가 되기 쉽다. 최첨단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제대로 고르는 법.

"고것 참 고민이네."

중소기업 부장 김종기(45) 씨. 최근 그는 큰마음 먹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했다.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한국에서도 인기 돌풍을 일으킨 아이폰을 사려니 애프터서비스가 어렵다는 말에 선뜻 구입하기가 내키지 않는다. 괜히 샀다가 제대로 이용도 못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 바람'에 들뜬 이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은 운영체제(OS)를 가진 휴대전화다. 일반 휴대전화와 달리 스마트폰 안에 운영체제가 설치돼 있어 사용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스마트폰은 '손안의 PC'로 불린다.

"아이폰 인기가 최고라지만 6월에 열릴 남아공 월드컵을 생각하면 옴니아2나 모토로이가 나은 거 같아요."

직장인 이동준(28) 씨는 축구, 야구 등 중요 경기는 빼놓지 않고 챙겨보는 스포츠광이다. 텔레비전이 없어도 휴대전화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이하 DMB)을 이용해 꼭 챙겨본다. 그에겐 아이폰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아이폰엔 DMB 기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길에 DMB TV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단연 옴니아2와 모토로이가 적격이다. 모토로이는 FM 수신 기능까지 갖췄다.

화면 크기에선 옴니아2와 모토로이가 똑같이 3.7인치로 아이폰(3.5인치)보다 다소 크다. 화면 선명도에서도 옴니아2와 모토로이는 각각 가로 4백80개, 세로 8백~8백54개의 점으로 화면을 나타내 아이폰보다 두 배 가까이 선명하다.

셀카를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깨끗한 사진 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도 아이폰보다는 모토로이와 옴니아2가 낫다. 아이폰은 3백만 화소 카메라를 쓰지만, 옴니아2는 5백만 화소, 모토로이는 8백만 화소 카메라를 사용한다. 특히 모토로이에는 아이폰과 옴니아2에는 없는 일반 디지털카메라용 고성능 플래시와 캠코더 기능까지 달렸다.

애플리케이션 14만 개 아이폰… AS는 국산보다 까다로워

콘텐츠 면에서는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14만 개를 넘어 모토로이 등 안드로이드폰(1만8천여 개)과 옴니아2(9백여 개)를 압도한다. 앱을 내려받아 처리하는 반응속도 면에서도 아이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반면 검색 기능을 통한 콘텐츠 공유를 원한다면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를 갖춘 모토로이 등 안드로이드폰이 앞선다. 이 폰은 흔히 '구글폰'으로 불리며 구글의 PC용 인터넷 콘텐츠인 구글검색, G메일, 구글지도, 유튜브, 구글 내비게이션 등이 포함돼 있다.

아이폰을 비롯한 해외 스마트폰은 애프터서비스가 쉽지 않다. 국내 대기업 애프터서비스센터가 수백 곳인 데 비해 전국의

▲아이폰 3GS ▲모토로이 ▲옴니아2

	아이폰 3GS	옴니아2	모토로이
화면 크기(화소 수)	3.5인치(320x480)	3.7인치(480x800)	3.7인치(480x854)
카메라	300만 화소	500만 화소	800만 화소
CPU 처리속도	800 Mhz	800 Mhz	600 Mhz
운영체제	애플 '아이폰'	MS '윈도 모바일'	구글 '안드로이드'
방송수신 기능	없음	지상파 DMB 시청 가능	지상파 DMB, FM라디오
장점	• 터치감 뛰어남 • 반응속도 빠름 • 10만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 보유	• 하드웨어 뛰어남 • 애프터서비스 탁월 • 다양한 포맷 동영상 재생 • 네비게이션 서비스 등 T스토어 지원	• 구글 콘텐츠와 연동 • 전 세계 유·무료 콘텐츠 이용
단점	• 배터리 탈부착 안 됨 • 애프터서비스 불편	• 인터넷 접속 속도 느림 • 터치감 떨어짐	• 애플리케이션 부족 • 터치감 떨어짐

애플 애프터서비스센터는 30여 곳에 불과하다. 특히 애플은 고장이 나도 애프터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지 않고 제품을 1 대 1로 교환해준 뒤 문제의 제품을 본사 공장으로 보내는 '리퍼'라는 독특한 애프터서비스 정책을 펴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스마트폰을 골랐다면 그 다음엔 기본적인 기능부터 차근차근 익혀 나만의 똑똑한 손안의 PC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데이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다. 스마트폰은 와이파이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소는 집이나 사무실보다 이동 중일 때가 더 많다.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에 가입하면 휴대전화 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출퇴근길 DMB TV 시청엔 옴니아2 · 모토로이 등 제격

서울 영등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선진(42)씨는 "특별히 이동통신사의 3G망을 통해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대용량 메일, 내려받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경우가 아니라면 1기가바이트(GB) 이하대 요금제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있는 각종 스마트폰 전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 관리하는 팁은 물론 각종 앱에 대한 리뷰와 일반 앱스토어에선 얻을 수 없는 개발자 프로그램까지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PC 혹은 인터넷과 연동해 개인 일정관리를 만든다. 월간, 주간, 일간 단위로 일정을 설정할 수 있고 경보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약속이나 일정을 수시로 알려준다.

스마트폰에 네이버, 다음, G메일(구글), 핫메일(MS) 등 메일 계정을 등록하면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메일까지도 끌어올 수 있다. 단순 텍스트뿐 아니라 MS워드나 엑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사진, 이미지 등 메일에 첨부된 파일들도 확인할 수 있다. G

글 · 손영일(주간동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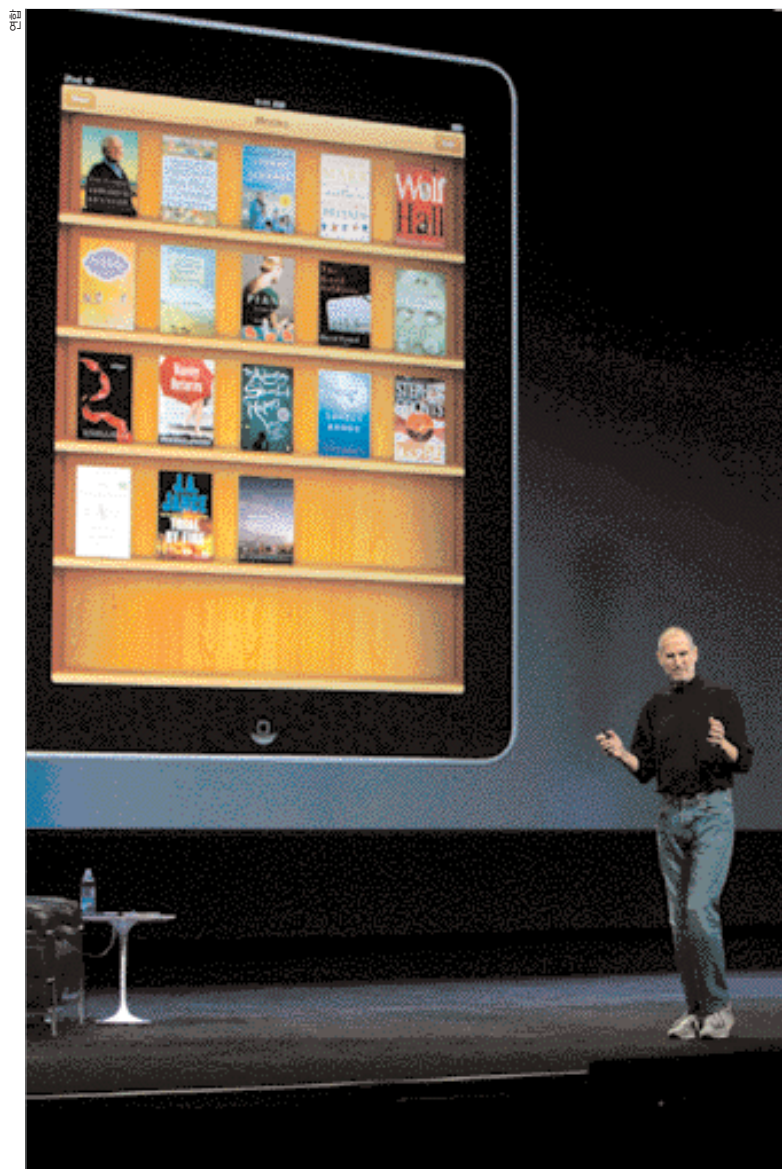
알쏭달쏭 스마트폰 용어해설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스마트폰 단말기에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와이파이 Wi-Fi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

앱스토어 App Store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약자. 응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안드로이드 Android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영체제. 개방된 체제로 누구나 자유롭게 앱을 개발해 올릴 수 있다.

연합

태블릿PC의 시대가 온다

차세대 개인용 정보기술(IT) 기기 '아이패드(iPad)'. 아이패드는 인터넷 검색은 물론, 동영상과 음악 재생, 전자책(e북),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된 PC다.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티브 잡스는 1월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아이패드를 공개하면서 "스마트폰과 랩탑을 연결해줄 기기를 고민하다 아이패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아이패드의 두께는 0.5인치, 무게는 1.5파운드로 전 세계에 출시된 어떤 넷북보다 얇고 가볍다. 터치 반응 속도가 빠르며, 배터리는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0시간 동안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 내 14만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책의 경우 새로 구축한 '아이북스' 스토어에서 살 수 있다.

*COD : 화학적 산소 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오염된 물의 수질을 나타내는 한 지표. *TMS : 원격 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KTV를 보면 세종시가 보인다

세종시 발전안 특집 방송

KTV는 2월 첫째 주말과 설 연휴 기간 세종시 발전안과 관련된 전문가 특강과 다큐멘터리 등 4개의 특별 편성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2월에 방영될 KTV 〈파워 특강〉에서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왼쪽),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오른쪽)이 세종시 발전안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정책방송(KTV)은 세종시 발전안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2월에 방영한다. 2월 첫 주말인 6, 7일과 설 연휴 기간인 13~15일에 방송될 이 프로그램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세종시 해법과 건설안에 대해 각각 설명한 〈파워 특강〉, 세종시 발전안의 세부 내용과 미래 비전을 담은 〈시사파일 뷰-미래도시 창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개발될 세종시 발전안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KTV 특집 다큐-세종시 미래로 간다〉로 구성돼 있다.

2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30분간 방영될 〈시사파일 뷰-미래도시 창조, 세종시〉는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도시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 발전안을 상세하게 알아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대신 기업, 대학, 연구소가 결합한 세종시 발전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2월 첫째 주 주말·설 연휴 기간에 다큐멘터리 등 방영

2월 6일 오후 5시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의 〈파워 특강-세종시 이렇게 건설됩니다〉를 방영한다. 권 차관은 세종시 발전안의 고용 유발 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설명한다. 권 차관은 세종시의 미래상을 짐작케 할 독일 드레스덴을 예로 들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드레스덴은 과학연구소와 기업 등을 유치해 현재 1천2백여 개의 기업이 입주한 성공 사례"라고 소개한다.

다음 날인 2월 7일 오후 3시 10분에는 전문가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의 〈파워 특강-세종시 해법을 말한다〉를 방영한다.

권 실장은 정부 부처 분할로 행정 비효율을 겪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세종시가 세계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이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세종시 핵심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준다.

또한 이날 밤 8시 30분에 방영될 〈KTV 특집 다큐-세종시 미래로 간다〉에서는 베를린과 본 양쪽 수도 분할을 경험한 독일 현지 취재를 통해 세종시의 미래 모델을 살펴본다. G

글 · 최은숙 기자

세종시 발전안 KTV 편성 일정

프로그램 명	방영 시간	
	2월 첫 주말	설 연휴
파워 특강 세종시 이렇게 건설됩니다. ·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2월 6일 (17:00)	2월 13일 (17:00) 2월 14일 (09:10)
파워 특강 세종시 해법을 말한다.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2월 7일 (15:10)	2월 13일 (19:30) 2월 14일 (15:10)
시사파일 뷰 미래도시 창조, 세종시	2월 6일 (10:40)	2월 13일 (10:30) 2월 15일 (13:00)
KTV 특집 다큐 세종시 미래로 간다	2월 7일 (20:30)	2월 14일 (19:00) 2월 15일 (20:00)

4대강 살리고 자생식물도 살리고

농촌진흥청 〈자생식물 식재 가이드북〉 발간

우리의 자생식물들이 4대강 살리기에 적극 활용돼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닌 강 유역이 탄생할 전망이다. 수중과 수변, 둔치에서 키우기 좋은 자생식물들의 식재정보 등을 모아 펴낸 농촌진흥청의 식재 가이드북 덕분이다.

'4대강 살리기, 한국 고유의 자생식물로 직접 한다.'

농촌진흥청은 4대강 유역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생태 복원에 활용할 수 있는 자생식물 정보를 담은 〈4대강 생태 복원을 위한 자생식물 식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은 식물별 생육 특성에 따라 수중, 수변, 둔치에 식재 가능한 1백30여 종을 다뤄 4대강 살리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공원 조성 등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식재 가이드북이 사진과 도표 등 이미지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과 식물별 특징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그동안 자생식물과 관련된 정보 부족으로 조경업체들이 우리 식물자원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점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자생식물 전문 생산농가, 관련 단체, 식물 목록, 기준 단가표 등 생산 현황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어 전문 조경업체 이외 일반인들도 개인이나 마을 단위로 자생화 정원 등을 만드는 데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한국 고유 자생식물의 생육 특성을 자세하게 다룬 이 식재 가이드북이 발간돼 자생식물 소비 활성화는 물론 자생식물을 생산 판매하는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자생식물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자생식물산업의 확대를 위해 자생식물이 갖고 있는 기능성, 다양한 식재 기법, 수질 정화능력 극대화 방법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생태벨트 복원, 농가에도 큰 도움 될 것"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과 박기훈 과장은 "식재 가이드북을 활용해 4대강 유역의 생태벨트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외국 식물이 들어와 생길 수 있는 환경 교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우리 고유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 보존할 수 있어 환경도 보전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 정서 함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생식물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살고 있는 토착식물을 말하며, 우리나라에는 총 1백85과 1천65속 4천5백96종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토의 단위면적당 종수(種數)로 보아 인접해 있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많고, 영국(2천여 종)이나 덴마크(1천5백여 종) 등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G 글 · 문상훈 객원기자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과 Tel 031-299-2617 www.rda.go.kr

일러스트 · 김영민

세 마디 말

글과 그림 · 최영순

부드러운 미소와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대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몸가짐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나누어 가질 수 있다.
- <잡보장경> 중에서

자동차 견인할 때 문자서비스로 알려준다

국민에 불편 주는 '전봇대' 1684개 뽑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37개 기관의 1만1천여 개 행정규칙을 검토해 모두 1천6백84건을 개선했다. 이로써 얻는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약 10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원 최영수 씨는 지난 연말 고등학교 동창생에게서 부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초저녁에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보니 주차장이 꽉 차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최 씨와 같이 차를 타고 왔던 다른 동창생이 "병원 옆 골목에 주차하면 된다"고 말했고, 마침 병원 옆 골목에는 다른 차들도 주차돼 있었다.

안심한 최 씨는 승용차를 병원 옆 골목에 주차했다. 장례식장으로 들어간 최 씨는 상주인 동창에게 예를 갖춘 다음 모처럼 만난 고교 동창생들과 마치 동창회라도 하듯 이야기꽃을 피웠다.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벽시계를 보니 어느덧 새벽 1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한 최 씨가 병원 옆 골목에서 발견한 것은 사라진 자동차 대신 차가운 겨울밤 바람에 나부끼는 견인 안내장이었다.

동아DB

주차해둔 자동차가 사라지면 도난당한 것인지 견인된 것인지 몰라 당황스럽다. 앞으로 불법주차 자동차를 견인할 때는 차량 소유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해 이 같은 혼란이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자동차를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세웠다가 차가 사라지면 무척 난감하다. 그나마 최 씨의 경우처럼 견인 안내장이 얼른 눈에 띄었으니 다행이지, 자동차는 증발하고 주변을 둘러봐도 얼른 견인 안내장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견인되면 분실신고를 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마음 졸이다 겨우 견인보관소를 찾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은 사라질 전망이다.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 보관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를 지난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2백27개 개선과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 5개 기관의 7백94개 행정규칙을 검토 분석해 선정했다.

개선 과제의 하나로 긴급구조 상황 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자의 진술을 받고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긴급구조 신고를 받는 즉시 전산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 정보를 조회해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신속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도 현실화된다. 구속 수감자 가운데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 신체적 약자도 송치 혹은 출정 시 예외 없이 수갑이나 포승줄을 쓰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동전화 위치추적 ·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도

한 건당 8백원씩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폐지된다.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납세증명서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한 구체적 판정 기준도 마련된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 시행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굴 면적, 일수 등 객관적인 발굴조사 판정 기준을 만들게 된다.

또한 민간투자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의료관광이 중요한 관광산업의 하나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조성 설치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G

글 · 박경아 기자

"농부가 발명한 농기자재 해외 수출도 하지요"

친환경 면포 등 26종 만든 김윤수 씨

김윤수 윤농산업 대표는 평생을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발명에 몰두해온 농부 발명왕이다. '농업에 필요한 기계나 자재라면 농부의 손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만든다'는 신념으로 26종의 농기자재를 개발했고, 그중 일부는 캐나다 수출 길까지 열었다.

"제 손을 보세요. 흙손입니다. 저는 평생 흙에서 살아온 농부입니다. 제가 고안하고 제작한 농기계나 자재는 모두 농사를 지으면서 절실히 필요했던 것들이지요."

평생을 과일농사, 땅콩농사, 쌀농사에 매달려온 김윤수(69·경북 칠곡군 왜관읍) 윤농산업 대표는 '농부 발명왕'이기도 하다.

그가 발명해 상품화한 농기자재만 6종이고, 실용신안 및 특허 출원 중인 것까지 더하면 26종에 이른다. 외발 손수레, 비닐하우스 덮개 자동개폐기, 과일 자동선별기 등 농가의 일손을 크게 덜어주는 농기계를 발명했고, 최근에는 썩어서 퇴비가 되는 면포를 외국에 수출하는 등 친환경 농기자재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제1회 '친환경농업대상'에서 우수 기술상, 2009년 제8회 '벤처기업창업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김 대표의 발명 시대는 1976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그는 고향인 경북 성주에서 과일농사를 짓고 있었다. 성주의 비닐하우스에서는 보온용 거적을 대량으로 사용했는데, 거적을 짜는 농부들의 손이 성할 날이 없었다. 이를 보다 못한 김 대표가 볏짚으로 거적을 짜는 기계를 만들었다. 이어서 '딸딸이'로 직접 이름 붙인 외발 손수레를 히트시켰다. 그때까지 좁은 논밭길이나 온실에서 운반 수단으로 쓰던 불편한 지게 대신, 자전거 바퀴를 응용한 외발 손수레가 농부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윤농면포 · 직파 기계 활용 영농기술 해외 전수도

이후에도 '비닐하우스 덮개 자동개폐기', '과일 자동선별기', '소형 이동 농약 살포기' '감자 캐는 굴착기', '약초 캐는 기계' 등 후속작들을 잇따라 터뜨렸다. 특히 '비닐하우스 덮개 자동개폐기'는 획기적인 발명으로 꼽힌다. 6백60제곱미터쯤 되는 비닐하우스 1개 동을 두 사람이 여닫으려면 20분이나 걸리지만, 자동개폐기는 한 사람이 10개 동을 10분이면 여닫을 수 있다.

2004년 그가 설립한 윤농산업이 출시한 '윤농면포'는 대표적인 친환경 농자재다. 농토 오염의 주범으로 지탄받던 비닐 덮개 대신, 사용 후 저절로 썩어 퇴비가 되는 피복재를 개발한 것이다. 이 면포를 이용하면 천수답에서도 벼농사를 물 걱정 없이 지을 수 있다. 내친 김에 김 대표는 면포를 깔면서 동시에 씨앗을 파종하는 종자 직파기까지 개발했다.

인터뷰365

김윤수 윤농산업 대표는 비닐하우스 덮개 자동 개폐기 등 농사일을 덜어주는 농기자재들을 개발했다. 캐나다에서 시범을 보인 종자 직파기(아래)는 친환경 면포를 깔면서 씨앗을 파종하는 농기계다.

윤농면포와 직파 기계를 활용한 영농 기술은 캐나다에까지 전해졌다. 지난해 4월 김 대표는 캐나다 주정부의 초청으로 몬트리올 북쪽에 있는 농경지에서 영농 기술 시범 지도를 해주고 왔다. 현지 전문가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포기한 농토를 점검해보니 부드러운 모래 위에 표면이 단단하게 굳은 땅이었다.

그는 종자 직파 기계와 면포를 이용해 표면을 갈아엎어 영농이 가능한 기술을 보여줬다. 그 광경을 지켜본 캐나다 관계자들은 감탄을 연발했다. 곧이어 캐나다 주정부는 농민 9명을 한국으로 보냈다. 파란 눈의 농부들은 경북 왜관에 있는 공장을 둘러보더니 그 자리에서 면포 수입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음식 쓰레기를 연료화하는 발명품을 특허 출원한 김 대표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김 대표는 "보리밥에 물 말아먹던 시절을 생각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발명은 곧 내가 가진 재능을 우리 사회에 베푸는 일"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두호(인터뷰365 발행인)

이사 후 전입 절차 한번에 OK

minwon.go.kr에서 생활민원 원스톱 서비스

이사만 한 번 가도 전·출입신고 등 처리해야 일들이 산더미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소 등을 변경하려면 주민센터나 경찰서 등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다. 그러나 이젠 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김지호(가명·40) 씨는 얼마 전 산업재해로 다리를 다쳐 결국 장애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장애 판정을 받은 것도 답답한 일인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이 복잡한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당장 주민센터를 찾아가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기존 승용차를 장애인용 승용차로 바꾸고 유류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지카드를 신청하는 등의 일을 처리하려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이정우(가명·43) 씨 부부는 얼마 전 이사한 뒤 전입신고와 아이들 전학을 위해 하루를 휴가 낸 뒤에야 겨우 주민센터, 구청 등 다섯 군데의 관공서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김 씨와 이 씨처럼 이사나 장애인 등록 등으로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으로 한 번에 서비스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1월 28일 개통했다.

일러스트 · 남동윤

정부민원포털에 접속하면 장애인복지, 이사, 보훈, 사망, 개명 신고 등 5종의 민원 업무를 통합민원신청서로 한꺼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김 씨처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정부민원포털에 접속해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된다. 장애인복지 일괄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및 증명 발급을 비롯한 12종의 관련 민원을 인터넷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 씨 역시 '이사민원 일괄서비스'(관련 민원 33종)를 이용하면 휴가를 내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처리 결과도 휴대전화나 e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사·보훈·사망·개명 신고·장애인복지 5종 서비스

신청이 완료된 민원은 정부민원포털에서 각 관련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된다. 최종적으로 담당공무원의 PC까지 전달돼 처리되면 처리 결과가 다시 정부민원포털에 전송된다. 따라서 민원인은 실시간으로 자신이 신청한 민원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온라인 민원처리 중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 개인정보 보호도 안심할 만하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신청한 모든 송수신 자료를 암호화하고, 자료 열람 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화면 캡처 방지 솔루션도 도입했다. 또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2D 소형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 진본성 확인 타임스탬프를 도입했고, 발급된 전자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확인 시스템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로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종이 문서 감축과 교통 수요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백91억원 절감되고 탄소 배출량은 연간 3448톤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장애인복지민원, 이사 등 5개 생활민원에 한정된 온라인 일괄서비스에 향후 10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일괄 서비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강찬우 사무관은 "전입신고 등 이사와 관련된 민원사항만도 연간 5백20만 건에 이른다"며 "앞으로 10종의 일괄서비스를 추가하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정부민원포털 minwon.go.kr

많고 많은 세금정보 한눈에 OK

국세청 고객 맞춤형 납세 서비스 'My NTS' 제공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은 물론 환급·체납 명세 등 25종의 세금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1월 21일부터 시작한 고객 맞춤형 납세 서비스 'My NTS'는 이러한 정보를 납세자의 유형에 맞게 한데 모아 보여준다.

경기 안양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민수 씨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법 개정사항과 자신의 세금신고 명세 등을 확인하려고 국세청의 여러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울화가 치밀었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 절차와 방법이 복잡한 데다 한 사이트에서도 여러 메뉴로 이동해야 하는 것도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 결국 김 씨는 별 성과도 없이 이내 인터넷 서핑을 포기하고 말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 같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납세 서비스 'My NTS'의 1단계 개발을 완료했다. My NTS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각각의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세금정보를 납세자 중심으로 한곳에서 보여주고, 세무 신고에서 상담까지 가능한 고객 맞춤형 납세 서비스다.

1월 21일부터 시작된 My NTS의 1단계 서비스는 납세자의 의견과 이용 빈도를 고려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신고 명세, 환급·고지·체납 명세 등 25종의 세금정보를 제공한다. 유형별로는 개인사업자용이 22종, 법인사업자용 21종, 비사업자용은 12종이다.

세무 신고에서 상담까지… 세법 개정사항 등 상세히 안내

이 밖에도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세금신고 명세와 민원처리 상황뿐 아니라 세법 개정사항과 시기에 맞는 공지사항, 신고 안내 등 필요한 정보도 안내해준다. 또한 납세자의 기호대로 세금정보를 표시하거나 감출 수 있고, 표시되는 위치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홈페이지 맨 상단에 'My NTS'라고 쓰인 문패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가입한 납세자의 유형에 따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사업자(개인) 중 하나로 자동 표시된다.

국세청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은 "올해 11월쯤 2단계 서비스가 시작된다"며 "My NTS는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등 국세 관련 웹사이트의 세금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한곳에서 세금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홈택스 www.hometax.go.kr

조영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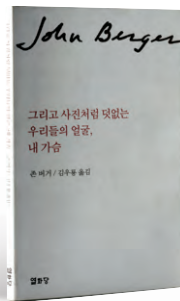
My NTS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My NTS' 1단계 서비스 제공 내용

세금정보 종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비사업자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	
표창, 수상 정보와 혜택	○	○	
관할 세무서 및 담당자 안내	○	○	
부가가치세 신고 명세	○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명세	○	○	
법인세 신고 명세		○	
종합소득세 신고 명세	○		○
양도소득세 신고 명세			○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명세(11종)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명세	○	○	○
세금납부 명세	○	○	
환급 명세	○	○	
고지 명세	○	○	
체납 명세	○	○	
징수유예신청 등 민원처리 상태 확인	○	○	○
신고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	○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자동계산	○		○
주요 공지사항 및 신고 안내	○	○	
근로자 등이 알면 유익한 정보			○
간이세액표, 연말정산 자동계산	○	○	○
기준경비율 · 표준소득률 조회	○	○	
국세청 발간 책자 내려받기	○	○	○
법정 서식	○	○	○
최신 개정 법령	○	○	○

시인 김경주가 추천하는 〈그리고 사진처럼 덧없는 우리들의 얼굴, 내 가슴〉

현대인 상처 치유하는 詩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가 바라보는 또 하나의 세상을 만나는 것이다. 시인 김경주는 시공간의 외로움을 표현한 존 버거의 〈그리고 사진처럼 덧없는 우리들의 얼굴, 내 가슴〉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생겼다고 말한다.

시는 삶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미학적인 텍스트다.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소소하게, 때론 진득하게 풀어내는 시를 읽으면 마음 속 깊은 곳이 뜨뜻해진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추운 겨울 훈훈한 열기를 만들어주듯 시 한 구절은 녹록지 않은 삶으로 얼어붙은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는다.

김경주(34) 시인은 그런 따스한 온기가 살아 있는 시를 쓴다. 지난해 제28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최근 세번째 시집 〈시차의 눈을 달랜다〉를 펴냈다. 기존 시의 문법에서 탈피한 그의 시는 난해하지만 삶에서 느끼는 순간을 세밀하게 표현해 독자와 소통한다.

김경주 시인은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다. 등단 전까지 야설 작가, 카피라이터 등으로 일했고 지금은 복합문화창작집단 '츄리닝 바람'을 이끌며 극작가, 연출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다양한 활동에 지지대가 되는 것은 '책'이다. 그에게 책은 늘 함께 있고 싶은 '동거형 책'과 자신만 숨겨두고 읽고 싶은 '은둔형 책'으로 분류된다. 그런 그가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싶다며 '은둔형 책' 중 한 권을 내밀었다.

김경주 시인은 "존 버거의 책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삶에 대해 좀 더 색다른 접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작가, 미술가, 소설가, 사회 비평가로 알려진 존 버거의 〈그리고 사진처럼 덧없는 우리들의 얼굴, 내 가슴〉이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에요. 제가 여행 책을 썼을 때 존경의 표시로 이 책의 한 부분을 오마주하기도 했어요.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공간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소외받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죠."

의미 곱씹으며 읽으면 '시공간 외로움' 밀려와

존 버거는 미술 비평으로부터 글쓰기를 시작해 예술과 인문, 사회 전반에 걸친 글쓰기로 영역을 확장한 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리고 사진처럼…〉은 인문학 교양서지만 보통의 책들과는 조금 색다르다. 작가의 소소한 경험들을 시와 에세이로 엮어 썼기 때문이다.

1부는 시간, 2부는 공간을 주제로 쓰인 이 책은 3, 4쪽을 넘지 않는 짧은 글들로 채워져 있다.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문장들은 결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곱씹어 읽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계량적인 '시간' 속에서 매 순간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지 못한 채요. '공간' 역시 산업화와 자본주의에 의해 본래 의미가 퇴색돼 버렸어요. 원래 집(공간)이란 말은 자신이 편히 사는 '세상의 중심'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의미를 되새기기 힘들죠. 집 한 채, 즉 자신만을 위한 공간에 머물기 위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처럼 돈에 얽매여야 하니까요."

김경주 시인은 책 속에 나온 이야기처럼 시공간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과 '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공간에 매이고 버림받은 것을 극복하려면 세상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랑'과 '시'가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이 책에 숨겨진 비밀들을 알아간다면 삶을 좀 더 내밀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설 연휴 고향 가는 길 함께할 친구 고르셨나요?

벌써 한 해의 첫 달이 지나갔다. 이쯤 되면 연초에 굳게 다짐한 결심들은 무너지고 묵은 습관들로 돌아가기 일쑤. 이럴 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권해지는 게 독서다. 독서의 큰 기능은 지식을 넓혀주는 것이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고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챙겨주는 것 또한 독서이기 때문이다.

매달 초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독서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위원들을 통해 10권의 추천도서를 선정한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문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추천됐다. 그중에서 '삶'이라는 키워드로 통하는 세 권의 책을 소개한다.

먼저 헌책에 미친 30대 헌책방 주인 윤성근 씨가 쓴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다. 그런데 이 헌책방은 좀 이상하다. 윤 씨가 읽은 책만 팔고,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전시회나 공연도 연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임도 가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기도 한다.

제목에도 '헌책방'이 들어가는 이 책은 그의 삶을 담고 있다. 이야기는 크게 두 장(章)으로 나뉜다. 윤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돈 안 되는' 헌책방을 차린 후 꾸려나가는 이야기인 '헌책방 일기'와 그가 직접 읽은 책의 서평으로 채워진 '독서 일기'다. 이 책을 추천한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는 "돈과 권력, 명예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우리 시대의 중요한 교양"이라고 말했다.

살아 있을 때 꼭 해야 할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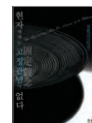
다음은 우리 삶 전반을 뒤돌아보게 해주는 책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다. 호스피스 전문의인 저자 오츠 슈이치는 1천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과 나눈 이야기와 죽음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이 책을 엮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인간이 죽음에 직면해서 하게 되는 후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저자는 유산문제, 자식문제 등 죽기 전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만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재점검할 수 있는 스물다섯 가지 목록을 제공한다.

음악가 모차르트의 삶을 조명한 책도 있다. 음악가이자 잡지 에디터로 활동하는 제러미 시프먼이 쓴 〈모차르트, 그 삶과 음악〉이다. 모차르트는 겨우 5살에 자신이 직접 작곡한 피아노곡 미뉴에트로 데뷔 무대를 가졌던 천재였다. 이 책은 모차르트 일생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룬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춘미 교수는 추천사에서 "모차르트의 삶과 더불어 그의 음악을 듣다 보면 어느덧 유럽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있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밝혔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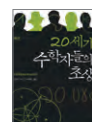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kpec.or.kr

장난감 도시
이동하 지음 · 문학과지성사 펴냄
6·25전쟁이 휩쓸고 간 이주민촌에 정착한 한 소년의 삶에 대한 책
추천 신경숙(소설가)

잉카 최후의 날
킴 매쿼리 지음 · 최유나 번역 · 옥당 펴냄
1천만 인구의 잉카 제국이 16세기에 1백68명의 스페인 침략군에게 멸망한 이유를 알려주는 책 | **추천**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현자에게는 고정관념이 없다
프랑수아 줄리앙 지음 · 박치완 김용석 번역 · 한울아카데미 펴냄
중국학을 연구한 서양철학자인 저자가 동양철학의 지혜에 대해 쓴 책 | **추천**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박영희 지음 · 우리교육 펴냄
시인인 저자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한 세 번째 르포집 | **추천**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컨슈머 키드 : 소비에 탐닉하는 아이들
에드 메이오, 애그니스 네언 지음 · 노승영 번역 · 책보세 펴냄
상업주의의 희생물이 된 어린이들의 딱한 처지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책 | **추천**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세기 수학자들의 초상
디트마 다스 지음 · 박승억 번역 · 궁리 펴냄
20세기를 선도한 수학자를 중심으로 수학이 무슨 학문인지 설명해 주는 에세이 | **추천** 최영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모차르트, 그 삶과 음악
제러미 시프먼 지음 · 임선근 번역 · 포토넷 펴냄
모차르트의 삶과 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열거한 책
추천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윤성근 지음 · 이매진 펴냄
헌책방을 운영하는 젊은이의 눈에 비친 책과 세상에 관한 에세이
추천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오츠 슈이치 지음 · 황소연 번역 · 21세기북스 펴냄
호스피스 전문의인 저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통찰을 일깨우는 책 | **추천**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거울 속으로
이수지 그림 · 비룡소 펴냄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꾸밀 수 있는, 글이 없는 그림책
추천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이금이(아동문학가)

Culture

루오 '미공개 14점' 한국 나들이

색채의 연금술사 루오展

일시 2월 28일까지 오전 11시~오후 7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오후 9시, 3월 1~28일 오전 11시~오후 8시(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휴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관람료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9천원, 만 4세 이상 어린이 8천원, 장애인 50퍼센트 할인(1~3급 동반 1인까지, 4~6급 본인만)
문의 02-588-8421 www.sac.or.kr

최근 들어 20세기 거장들의 미술 전시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조르주 루오(Georges Rouault · 1871~1958)의 작품 1백70여 점을 선보인 '색채의 연금술사 루오展'은 특별한 컬렉션으로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는 '서커스 소녀'(Fille de Cirque · 1939~1949년), '십자가의 그리스도'(Christ en croix · 1949~1953년) 등 세계 어디에서도 전시된 적 없는 미공개작 14점이 한국에서 첫선을 보인다. 또 대표작인 '베로니카'(Veronique · 1945), '그리스도의 얼굴'(La Sainte Face · 1933), '부상당한 광대'(Le Clown Blesse · 1932), '견습공'(L'apprenti-ouvrier · 1925) 등 그의 고국 프랑스에서조차 단 한 번밖에 전시된 적이 없는 7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소장품이다. 루오는 마티스와 함께 야수파를 대표하는 화가로 생전에 자신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회화들을 퐁피두센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곤 했다. 또 루오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은 그의 대작뿐 아니라 아틀리에에 남아 있던 미완성작들까지 기증한다.

퐁피두센터가 30년 넘게 소장해온 이 값진 컬렉션의 전시 무대로 한국을 택한 데는 한국의 거장 이중섭이 한몫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솔명엔터테인먼트의 임은신 큐레이터는 "퐁피두센터와 루오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한 루오재단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루오'라 불리던 이중섭을 배출한 나라라는 점에 상당한 호감을 가졌다"며 "루오재단은 루오가 미완성작으로 여겼던 14점의 미공개작도 전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고 전했다.

내면의 고뇌와 성찰을 정열적이고 강렬한 색채와 터치로 표현한 루오의 명화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뮤지컬 '요덕스토리'

일시 2월 9~28일 화~금요일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4시, 8시, 토·일요일 오후 3시, 7시(월요일엔 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1600-6366 www.ntok.go.kr

2006년 3월 15일 초연 후 국내 공연 1백 회, 미국 투어 공연 15회를 치르며 연간 16만 관객 동원의 대기록을 세운 한국 창작 뮤지컬의 신화. 북한이라는 차갑고 무거운 배경 위에 위대한 사랑과 휴머니즘을 녹여낸 뮤지컬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해왔다. 이번에는 안무가 서병구, 음악감독 조선아, 작곡가 송시현 등이 가세해 한층 성숙한 극을 선보인다. 실물 크기의 탱크와 다이내믹한 무대도 놓치기 아까운 볼거리다.

이리자 한복 기증특별전 '선과 색의 어울림'

일시 2월 15일까지 오전 9시~오후 5시(화요일엔 휴관)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3704-3155 www.nfm.go.kr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 선생이 기증한 3백50여 점의 작품 중에서 색동금박 한복 등 1백50여 점이 전시 중이다. 1970~1990년대 한복의 유행을 주도한 그의 작품을 통해 시대 흐름과 함께 변화된 한복의 형태, 옷감, 장식기법 등을 재조명하는 자리다. 전시 공간은 다양한 한복을 자연 속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당초 전시 기한은 지난해 말이었으나 관객의 호응에 힘입어 2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www.tvworknet.or.kr

일자리는 늘리고, 직업능력은 키우고

한국직업방송 개국!

일자리 창출과 전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국직업방송이 출발합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의 희망채널이 되겠습니다.

한국직업방송 2010년 1월 개국!

TV WORK NET 한국직업방송